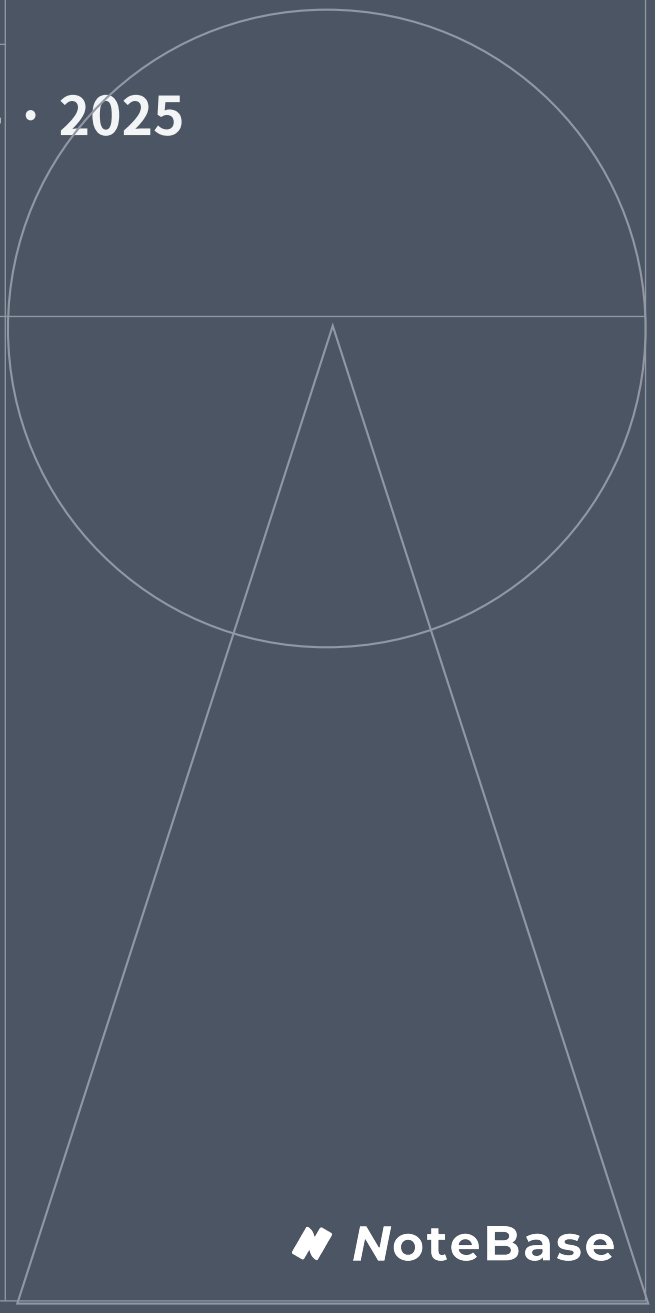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5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5

문 1.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① (주)세무: 처분이익 ₩1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

②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

③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④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 (주)한국: 처분손실 ₩100,000

⑤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 더 명백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각 회사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세무 건물의 장부금액: ₩5,100,000 - ₩1,500,000 = ₩3,600,000
(주)한국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4,000,000 - ₩600,000 = ₩3,400,000
(주)세무 건물의 공정가치 ₩3,800,000이 더 명백하며, (주)세무는 현금 ₩400,000을 수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처분손익=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로 교환거래를 측정한다. 두 자산의 공정가치 중 하나가 더 명백하면 그 값을 우선하며, 현금 지급액은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관계에 반영한다.

계산 과정

1. (주)세무의 건물 처분이익은 ₩3,800,000 - ₩3,600,000 = ₩200,000이다.
2. (주)한국은 공정가치 ₩3,800,000인 건물을 받고 현금 ₩400,000을 지급하므로,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3,800,000 - ₩400,000 = ₩3,400,000이다.
3. (주)한국의 기계장치 처분손익은 ₩3,400,000 - ₩3,400,000 = ₩0이다.

선지 판단

① X. (주)한국의 처분손익 ₩0은 맞지만, (주)세무의 처분이익은 ₩100,000이 아니라 ₩200,000이다. 올바르게는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이다.
② O. (주)세무는 처분이익 ₩200,000, (주)한국은 처분손익 ₩0을 인식하므로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③ X. (주)세무의 처분이익 ₩200,000은 맞지만, (주)한국의 처분이익은 ₩100,000이 아니라 ₩0이다. 올바르게는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이다.
④ X. (주)세무의 처분이익은 ₩300,000이 아니라 ₩200,000이고, (주)한국은 처분손실 ₩100,000이 아니라 처분손익 ₩0을 인식한다. 올바르게는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이다.
⑤ X. (주)세무의 처분이익은 ₩300,000이 아니라 ₩200,000이고, (주)한국의 처분이익은 ₩100,000이 아니라 ₩0이다. 올바르게는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 (주)한국: 처분손익 ₩0'이다.

오답 포인트

표에 제시된 (주)한국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500,000을 그대로 사용하면 처분이익 ₩100,000이 나오지만, 문제는 (주)세무 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공정가치에서 (주)한국이 지급한 현금을 차감하여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3,400,000으로 역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고, 상업적 실질과 공정가치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더 명백한 공정가치와 현금 수수액을 이용해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해 각 당사자의 처분손익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교환손익은 '더 명백한 공정가치 - 장부금액'이며, 현금을 지급한 쪽의 제공 자산 공정가치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지급 현금을 차감한다.

NoteBase

문 2. (주)세무가 20x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50,000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거래처 A로부터 FOB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매입한 원가 ₩40,000의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거래처 B에게 FOB 도착지인도기준으로 원가 ₩20,000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수탁자 C에게 적송한 원가 ₩20,000의 상품 중 40%가 판매되었다.
◯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30,000이며, 이 중 20%에 대해 매입의사를 통보받았다.
◯ 거래처 D에게 원가 ₩10,000의 상품을 ₩12,000에 판매하고, 2개월 후 이를 ₩13,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128,000
② ₩134,000
③ ₩136,000
④ ₩140,000
⑤ ₩156,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 장부에 포함할 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창고 보관 재고: 50,000원
FOB 선적지인도조건 매입 운송품: 선적 시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40,000원을 포함한다.
FOB 도착지인도조건 판매 운송품: 도착 전까지 판매자가 소유하므로 20,000원을 포함한다.
위탁상품: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60%인 12,000원을 포함한다.
시송품: 고객이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80%인 24,000원을 포함한다.
재구매약정 상품: 실질적인 판매가 아니라 금융거래이므로 원가 10,000원을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재고자산 = 창고 재고 + 소유권이 있는 운송품 + 미판매 위탁상품 + 미승인 시송품 + 재구매약정 상품

상품의 물리적 보관 장소가 아니라 결산일 현재 소유권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미판매 위탁상품은 20,000 × 60% = 12,000원이다.
2. 미승인 시송품은 30,000 × 80% = 24,000원이다.
3. 재고자산은 50,000 + 40,000 + 20,000 + 12,000 + 24,000 + 10,000 = 15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28,000원은 결산일 현재 회사가 소유하는 재고를 모두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128,000원은 올바르게는 156,000원이다.
② X — 134,000원은 운송품·미판매 위탁상품·미승인 시송품·재구매약정 상품을 소유권 기준으로 모두 합산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34,000원은 올바르게는 156,000원이다.
③ X — 136,000원은 FOB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아직 운송 중인 상품 20,000원을 누락한 경우의 금액이다. 이 상품은 도착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이므로, 틀린 금액 136,000원은 올바르게는 156,000원이다.
④ X — 140,000원은 결산일 재고자산의 소유권 판단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140,000원은 올바르게는 156,000원이다.
⑤ O —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고를 합산한 금액이 156,00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재고가 창고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안 된다. FOB 조건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위탁판매와 시송품은 실제 판매·승인된 부분만 제외하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고정가격 재구매약정은 형식상 판매처럼 보여도 경제적 실질이 금융거래이므로 재고를 계속 인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상품의 결산일 소유자를 판정하고, 판매가 완료된 부분만 제외한 뒤, 형식상 판매라도 재구매약정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을 확인하여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는 장소가 아니라 소유권으로 판단한다. 선적지 조건은 선적 시, 도착지 조건은 도착 시 소유권이 이전되며, 미판매 위탁품·미승인 시송품·금융거래인 재구매약정 상품은 판매자 재고이다.

NoteBase

문 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산정 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30% ◯ 당기 매출채권 회수 ₩33,000
◯ 당기 현금매출 ₩11,000 ◯ 기초 재고액 7,050
◯ 기초 매출채권 1,000 ◯ 당기 매입액 30,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① 5회
② 5.5회
③ 6회
④ 6.5회
⑤ 7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채권 변동으로 외상매출액을 구하고,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계산한 뒤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총이익률 30%,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33,000, 당기 현금매출액 ₩11,000, 기초 매출채권 ₩1,000, 기말 매출채권 ₩2,000, 기초 재고액 ₩7,050, 당기 매입액 ₩30,000이다.
구해야 할 값: 평균재고자산을 분모로 한 재고자산회전율이다.
주의할 조건: 재무상태표 항목인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외상매출액은 매출채권 계정의 흐름에 따라 구한다.
기초 매출채권+외상매출액-회수액=기말 매출채권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이다.
매출원가=매출액× 70\%
재고자산의 흐름과 회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초 재고액+당기 매입액-매출원가=기말 재고액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기초 재고액+기말 재고액)/2
재고자산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매출원가가 평균재고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외상매출액은 ₩33,000+₩2,000-₩1,000=₩34,000이다.
2. 총매출액은 외상매출액 ₩34,000과 현금매출액 ₩11,000의 합계인 ₩45,000이다.
3. 매출원가는 ₩45,000×70%=₩31,500이다.
4. 기말 재고액은 ₩7,050+₩30,000-₩31,500=₩5,550이다.
5. 평균재고자산은 (₩7,050+₩5,550)÷2=₩6,300이다.
6. 재고자산회전율은 ₩31,500÷₩6,300=5회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재고자산회전율이 5회이므로 옳다.
② X — '5.5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회이다.
③ X — '6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회이다.
④ X — '6.5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회이다.
⑤ X — '7회'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5회이다.

오답 포인트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33,000을 외상매출액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외상매출액은 매출채권의 기초·기말 변동을 반영하여 ₩34,000으로 계산한다. 또한 매출총이익률 30%를 매출원가율로 사용하면 안 되며, 매출원가율은 70%이다. 마지막으로 기초 재고액만 사용하지 않고 기초·기말 재고액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채권 흐름으로 외상매출액을 구한 뒤 현금매출액을 더해 총매출액을 계산한다. 이어서 매출총이익률을 매출원가율로 바꾸어 매출원가를 구하고, 재고자산 흐름으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한 다음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회전율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이고, 평균재고자산은 '(기초 재고액+기말 재고액)÷2'이다.

NoteBase

문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②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③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요건, 측정 기준, 처분부대원가의 현재가치 측정 및 감가상각 중단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니라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비유동자산이다.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분류 후에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② O —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 물색과 계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이미 시작하여야 한다.
③ O — 매각이 1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처분부대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중 큰 금액'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⑤ O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비유동자산은 더 이상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재고자산의 저가법과 마찬가지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장부금액을 유지하지 않도록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점을 '큰 금액'으로 바꾸어 출제한 선지이다. 또한 ③의 '1년 이후'는 처분부대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그 표현만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는 '매각으로 주로 회수·즉시 매각 가능·매각 가능성 매우 높음', 측정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 후속 회계처리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 중단'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각예정은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은 중단한다.

NoteBase

문 5.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영업용 유류 저장설비(취득원가 ₩3,900,000, 잔존가치 ₩300,000, 내용연수 4년)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 종료 후 ₩400,000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1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8%이며,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350이고,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1,080,000

② ₩1,185,840

③ ₩1,275,840

④ ₩1,581,120

⑤ ₩1,701,1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와 충당부채에 포함하고,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와 충당부채 할인액의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을 각각 월할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설비 대가 3,900,000원에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 294,000원을 더한 4,194,000원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4,194,000원에서 잔존가치 300,000원을 뺀 3,894,000원이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3+2+1=10$이고, 첫해 상각률은 4/10이다.
4월 1일 취득이므로 20x1년에는 9개월분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원상복구충당부채의 최초 측정액은 $400{,}000 \times 0.7350$이다. 미래 복구지출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 원가와 충당부채에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첫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4/10×9/12이다. 연수합계법에서는 첫해에 남은 내용연수 4를 연수합계 10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은 충당부채의 기초 장부금액×할인율×9/12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할인액이 상각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원상복구충당부채의 최초 측정액: 400,000 × 0.7350 = 294,000원이 된다.
2. 유형자산 취득원가: 3,900,000 + 294,000 = 4,194,000원이 된다.
3. 20x1년 감가상각비: (4,194,000 − 300,000) × 4/10 × 9/12 = 1,168,200원이 된다.
4. 20x1년 이자비용: 294,000 × 8% × 9/12 = 17,640원이 된다.
5. 20x1년 당기비용: 1,168,200 + 17,640 = 1,185,840원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 1,080,000원은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설비의 감가상각대상금액만 (3,900,000 − 300,000) × 4/10 × 9/12로 계산한 값이다. 또한 이자비용도 누락하였다. 올바른 당기비용은 1,185,840원이다.
② O — 월할한 감가상각비 1,168,200원과 이자비용 17,640원의 합계가 1,185,840원이므로 옳다.
③ X — 1,275,84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치 300,000원을 차감하지 않아 나온 값이다. 올바르게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3,894,000원에 첫해 상각률과 9개월 비율을 적용하고 이자비용을 더하여 1,185,840원으로 계산한다.
④ X — 1,581,120원은 첫해 감가상각비 1,557,600원과 이자비용 23,520원을 모두 12개월분으로 계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만 인식하여 1,185,840원이 된다.
⑤ X — 1,701,120원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은 연간 감가상각비 1,677,600원에 연간 이자비용 23,520원을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두 비용을 모두 9개월분으로 계산하여 1,185,840원으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원상복구충당부채 294,000원은 부채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도 가산한다. 다만 미래 복구지출 400,000원 전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294,000원을 가산한다. 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는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4월 1일 취득 조건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모두 9개월분만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 문제에서는 복구지출의 현재가치 계산 → 취득원가 가산 → 잔존가치 차감 → 감가상각방법과 보유월수 적용 → 충당부채 이자비용 가산의 순서로 당기비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는 자산원가와 충당부채에 함께 반영하며, 이후 당기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할인액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이 함께 포함된다.

NoteBase

문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x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x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980,000	₩1,050,000	₩990,000

① 영향없음

② ₩7,500 감소

③ ₩7,500 증가

④ ₩10,000 감소

⑤ ₩10,000 증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할 때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 전환 후 감가상각, 기말 재평가손익을 구분하여 당기순이익 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0원
20×1년 12월 31일 공정가치: 980,000원
20×2년 5월 1일 공정가치: 1,050,000원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990,000원
전환 후 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20×2년 감가상각 기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NoteBase

사용할 공식

전환 전 공정가치평가이익은 1, 050, 000 − 980, 000이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1, 050, 000 ÷ 20이고, 20×2년 감가상각비는 1, 050, 000 ÷ 20 × 8/12이다.
기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 050, 000 − 35, 000이며, 재평가감소액은 1, 015, 000 − 990, 000이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용도 전환일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전환한 날의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의 간주원가가 되므로 이후에는 감가상각과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 1, 050, 000 − 980, 000 = 70, 000원 증가
2. 전환일 장부금액 1,050,000원을 간주원가로 한 8개월 감가상각비: 1, 050, 000 ÷ 20 × 8/12 = 35, 000원 감소
3. 기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 1, 050, 000 − 35, 000 = 1, 015, 000원
4. 기말 공정가치가 990,000원이므로 재평가감소액: 1, 015, 000 − 990, 000 = 25, 000원 감소.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당기손실로 반영한다.
5. 20×2년도 당기순이익 순효과: 70, 000 − 35, 000 − 25, 000 = 10, 000원 증가

선지 판단

① X. 공정가치평가이익 70,000원, 감가상각비 35,000원, 재평가손실 25,000원이 발생하므로 영향이 없다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② X. 세 손익 효과를 합산하면 7,500원 감소가 아니라 10,000원 증가한다.
③ X. 당기순이익 증가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리다. 올바른 증가액은 7,5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다.
④ X. 금액의 절댓값은 같지만 방향이 틀리다.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가 아니라 10,000원 증가한다.
⑤ O. 전환 전 공정가치평가이익 7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35,000원과 재평가손실 25,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전환일 공정가치 1,05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990,000원의 차이 60,000원을 곧바로 재평가손실로 처리하면 안 된다. 전환 후 8개월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 1,015,000원과 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해야 하므로 재평가손실은 25,000원이다. 또한 전환 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상승분 70,000원도 20×2년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도 전환일을 경계로 회계처리를 나눈다. 먼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전환일까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전환일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삼아 감가상각한 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재평가손익을 계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면 '전환일까지 공정가치손익 → 전환일 공정가치가 간주원가 → 감가상각 후 재평가'의 순서로 처리한다.

문 7.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④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손익의 인식 및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시점과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측정에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현행 시장 가정을 반영하므로 기업이 체결한 개별 판매계약의 가격이나 자산의 자금조달 방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전제로 한 시장기준 금액이다. 따라서 미래 판매계약의 계약가격은 기업 고유의 약정가격일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② O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다. 별도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와 같더라도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만큼 최초 인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현재가치기법으로 측정할 때 해당 자산의 자금조달 현금흐름과 수확 후 생물자산을 다시 조성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O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하면서 생긴 평가손익과 이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생긴 평가손익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O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조건부 정부보조금은 부수조건을 충족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조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가 귀속된다면 그 경과에 맞추어 해당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측정액에 넣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함정이다.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자산 자체에서 얻을 현금흐름과 자금조달 현금흐름을 구분하며, 수확 후 다시 조성하는 별도 활동의 현금흐름도 제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물자산 문항에서는 먼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라는 측정기준을 잡고, 계약가격은 필수 기준이 아니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현금흐름 측정에서는 자산 자체의 현금흐름과 자금조달·수확 후 재조성 현금흐름을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생물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고, 변동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자금조달·수확 후 재조성 현금흐름은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x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x3년도 손상차손과 (B)20x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구분	20×1. 1. 1. ~ 20×1. 12. 31.	20×2. 1. 1. ~ 20×2. 4. 30.
개발활동	₩4,500,000	₩7,500,000

구분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1,500,000	₩8,200,000	₩8,900,000

① (A): ₩1,400,000 / (B): ₩1,184,000

② (A): ₩1,400,000 / (B): ₩1,584,000

③ (A): ₩1,800,000 / (B): ₩1,184,000

④ (A): ₩1,800,000 / (B): ₩1,584,000

⑤ (A): ₩1,800,000 / (B): ₩1,684,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형자산의 월할 상각, 손상차손 인식,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초로 한 상각, 손상차손환입의 상한을 차례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4,500,000원 + 7,500,000원 = 12,000,000원
사용 가능일: 20x2년 5월 1일
내용연수: 10년 = 120개월, 잔존가치: 0원, 상각방법: 정액법
회수가능액: 20x2년 말 11,500,000원, 20x3년 말 8,200,000원, 20x4년 말 8,900,000원
주의할 조건: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도달했을 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정액법 월상각액은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개월))이다.
손상차손은 (손상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0)이다.
손상차손환입액은 (회수가능액-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이 없었다면 계산될 장부금액-환입 전 장부금액)이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후 회복되면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상한으로 환입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월상각액은 12,000,000원 ÷ 120개월=100,000원이다. 20x2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상각하므로 상각액은 800,000원, 연말 장부금액은 11,2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11,500,000원이 더 크므로 20x2년에는 손상차손이 없다.
2. 20x3년 상각액은 1,200,000원이므로 손상 전 장부금액은 10,000,000원이다. 따라서 (A) 손상차손은 10,000,000원-8,200,000원=1,800,000원이다.
3. 20x3년 말 손상 후 장부금액은 8,200,000원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100개월이다. 20x4년 상각액은 8,200,000원 ÷ 100개월 × 12개월=984,000원, 환입 전 장부금액은 7,216,000원이다.
4. 회수가능액까지 올리려면 1,684,000원을 환입해야 하지만, 손상이 없었다면 20x4년 말 장부금액은 12,000,000원-100,000원 × 32개월=8,800,000원이다. 따라서 환입 상한은 8,800,000원-7,216,000원=1,584,000원이고, (B) 손상차손환입액은 1,58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A) 1,400,000원은 틀리고, 올바르게는 1,800,000원이다. 또한 (B) 1,184,000원도 틀리고, 올바르게는 환입 상한을 적용한 1,584,000원이다.
② X — (B) 1,584,000원은 맞지만 (A) 1,400,000원이 틀리다. (A)는 20x3년 손상 전 장부금액 10,000,000원과 회수가능액 8,200,000원의 차이인 1,800,000원이다.
③ X — (A) 1,800,000원은 맞지만 (B) 1,184,000원이 틀리다. 올바른 (B)는 1,584,000원이다.
④ O — (A) 1,800,000원과 (B) 1,584,0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A) 1,800,000원은 맞지만 (B) 1,684,000원이 틀리다. 1,684,000원은 회수가능액 8,900,000원과 환입 전 장부금액 7,216,000원의 단순 차이이며,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8,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환입액은 1,58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1,684,000원은 회수가능액까지만 올리는 계산을 하고 환입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또 손상 후에는 최초 원가 기준의 기존 상각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득원가 확정 → 사용 가능일부터 월할 상각 →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 인식 → 손상 후 장부금액으로 다음 연도 상각 → 회수가능액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중 낮은 금액까지 환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상각은 새 장부금액과 남은 내용연수로 계산하고, 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장부금액'을 넘지 못한다.

NoteBase

문 9.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④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시장조건·비가득조건·그 밖의 가득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현금결제형 거래가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될 때의 측정기준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조건과 비가득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므로, 그 조건 자체의 충족 여부를 사후에 보상비용 인식 수량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최종 가득 수량에 반영하므로 충족되지 않으면 누적 인식액은 0이 된다. 현금결제형 거래가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여한 지분상품은 변경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실제 가득 수량에 반영한다. 이 조건의 미충족으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않으면 누적기준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은 0이다.
② O.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③ O. 비가득조건도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된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부분이다. 현금결제형 거래가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면 지분상품은 변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이 원칙은 변경이 가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O. 결제방법을 기업이 선택하는 거래에서는 기업에 현금결제의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현재의무가 있으면 현금결제형으로, 없으면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변경이 가득기간 이후라는 사실을 이용해 측정기준일을 가득기간 종료일로 바꾼 선지이다. 분류가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바뀌는 거래의 핵심 기준일은 가득일이 아니라 변경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건을 시장조건·비가득조건·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으로 나눈다. 앞의 두 조건은 공정가치에 반영하고, 마지막 조건은 가득 수량에 반영한다. 이어 결제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새 유형을 적용하며,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바뀌면 변경일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조건·비가득조건은 공정가치, 비시장 가득조건은 수량, 현금형에서 주식형으로의 변경은 변경일 공정가치이다.

NoteBase

문 10.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②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③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④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되는 지출과 제외되는 지출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조정충당부채에는 구조조정에서 직접 발생하고, 구조조정에 반드시 수반되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만 포함한다. 미래 영업손실과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에서 발생하는 현재의무에는 별도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를 포함한다'이다. 이는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을 위한 미래 투자지출이므로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을 지출과 상계한다'이다. 구조조정의 일부로 자산 매각을 계획하더라도 예상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한다'이다.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하고, 구조조정에서 직접 발생하며 반드시 수반되는 지출만 포함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이다. 간접비용이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직접 발생하고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필수 지출만 포함한다.
⑤ O — 구조조정 완료일까지 예상되는 미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이 존재하면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재의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되어 보이는 모든 비용을 충당부채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①·③·④는 계속적 활동 관련 지출이나 간접비용까지 포함시켰고, ②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산 처분이익을 상계하도록 바꾸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당 지출이 구조조정에서 직접 발생하는지, 구조조정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계속적인 활동과 무관한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미래 영업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별도로 인식한다.

암기 포인트

구조조정충당부채는 '직접·필수·계속활동 무관' 지출만 포함하고, 미래 영업손실과 자산 처분이익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11.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④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종업원급여의 유형별 인식 시점과 손익·기타포괄손익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누적 유급휴가는 실제 사용 시점이 아니라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늘리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핵심 개념

단기 누적 유급휴가는 미사용 권리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급여로서, 종업원의 근무용역으로 권리가 누적될 때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비누적 유급휴가는 권리가 이월되지 않으므로 실제 휴가가 발생할 때 원가를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이다.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실제 휴가 발생 시 인식하는 것은 비누적 유급휴가이다.
② O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의 의무는 소유주와의 이익분배 거래가 아니라 종업원의 근무용역에서 생긴다. 따라서 관련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O —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한다. 해당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으면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④ O —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구성요소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전체 변동 중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재측정요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⑤ O —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리하지 않고, 관련 순액을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누적'과 '비누적' 유급휴가의 인식 시점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④의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는 재측정요소처럼 보이지만 순이자에 포함되어 당기손익으로 가고, 순이자를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급휴가는 먼저 권리의 이월 여부를 확인한다. 누적이면 근무용역 제공 시, 비누적이면 휴가 발생 시 인식한다. 확정급여원가는 순이자와 재측정을 구분하고,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 휴가=근무할 때, 비누적 휴가=쉴 때. 자산상한 이자=당기손익, 기타장기 재측정=당기손익이다.

NoteBase

문 12.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20x1년과 20x2년에는 배당을 못하였으나, 20x3년에는 조건에 따라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선주 A와 B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1년도, 20x2년도, 20x3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우선주 발행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은 5%로 가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연도 배당금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말이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구분	주당 액면금액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기준 연 배당률	비고
우선주 A	₩1,000	100주	3% (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000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우선주 B	₩1,000	100주	5% (비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200에 의무적으로 상환

기간	5%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	0.9524	0.9524
2	0.9070	1.8594
3	0.8638	2.7232
4	0.8227	3.5460

① ₩12,970 감소

② ₩15,000 감소

③ ₩15,561 감소

④ ₩17,596 감소

⑤ ₩18,000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환의무가 있는 우선주의 부채요소를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한 뒤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우선주 A: 발행자가 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인도의 계약상 의무가 없고,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누적배당 9,000원의 지급은 이익잉여금의 배분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선주 B: 20x4년 말 주당 1,200원으로 의무상환하므로 상환금액 120,000원에 관한 금융부채요소가 존재한다.
비누적적 배당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부분은 지분요소이며, 20x3년에 지급한 배당 5,000원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우선주 B의 부채요소에서 발생하는
유효이자비용뿐이다.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은 의무상환액의 현재가치이다.
최초 부채요소=120,000×0.8227=98,724
각 연도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비용=기초 부채 장부금액×5\%
의무상환액을 4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4년 단일금액 현가계수 0.8227을 사용하며, 이후에는 유효이자율 5%로 부채를 상각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이자비용: 98,724 × 5% = 4,936.2, 기말 부채는 103,660.2원이다.
2. 20x2년 이자비용: 103,660.2 × 5% = 5,183.01, 기말 부채는 108,843.21원이다.
3. 20x3년 이자비용: 108,843.21 × 5% = 5,442.1605이다.
4. 3개 연도의 이자비용 합계는 4,936.2 + 5,183.01 + 5,442.1605 = 15,561.3705원이므로 원 단위로 제시된 선지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5,561원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2,970 감소’는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 98,724원에 유효이자율 5%를 매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5,561원 감소이다.
② X — ‘15,000 감소’는 액면금액 100,000원에 5%를 단순히 3회 적용한 값이다. 최초 부채요소는 의무상환액 120,000원의 현재가치인 98,724원이고 복리 방식의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므로 올바르게는 15,561원 감소이다.
③ O — 20x1년부터 20x3년까지의 유효이자비용 4,936.2원, 5,183.01원, 5,442.1605원의 합계가 약 15,561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5,561원 감소한다.
④ X — ‘17,596 감소’는 3개 연도의 유효이자비용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액은 지분의 배분이므로 비용에 더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15,561원 감소이다.
⑤ X — ‘18,000 감소’는 우선주 A의 누적배당이나 우선주 B의 비누적배당을 당기손익 비용처럼 포함한 잘못된 금액이다. 배당은 지분의 배분이고 당기손익에는 우선주 B 부채요소의 이자비용만 반영되므로 올바르게는 15,561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우선주의 명칭이나 배당률만 보고 전액을 지분 또는 부채로 처리하면 안 된다. A는 발행자에게 상환 선택권이 있어 지분상품이고, B는 의무상환금액에 관한 부채요소와 재량적 배당에 관한 지분요소를 함께 가진다. 또한 ②처럼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단순 적용하거나, ④·⑤처럼 지분 배당을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행자에게 현금 지급의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무상환액은 부채요소로 분리하여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이후 각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발행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배당은 지분의 배분이므로 당기손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상환 선택권은 지분, 상환 의무는 부채이다. 부채는 현재가치로 시작해 유효이자율로 상각하고, 재량적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주)세무가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인식할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 액면이자율: 2%(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
◯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
◯ 보장수익률: 4%
◯ 전환조건: 20x1년 2월 1일부터 20x3년 11월 30일까지 액면금액 ₩10,000당 액면금액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6%	4%	5%	6%
3	0.8890	0.8638	0.8396	2.7751	2.7232	2.6730

① ₩24,507
② ₩26,715
③ ₩27,807
④ ₩54,522
⑤ ₩62,43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의 발행가액과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각각 구한 뒤, 그 차액을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로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원, 매년 말 이자는 20,000원, 만기는 3년이다. 보장수익률 4%로 만기상환액을 정하고, 전환사채의 시장이자율 5%로 전체 발행가액을 계산하며, 동일 조건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6%로 부채요소를 계산한다. 자본요소는 전체 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를 뺀 잔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만기상환액을 R, 연간 액면이자를 I, 액면금액을 F라 하면 다음 관계를 사용한다.
$I \times PVIFA(4\%, 3) + R \times PVIF(4\%, 3) = F$
전체 발행가액은 5%로 할인한 약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고, 부채요소는 동일한 약정 현금흐름을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자본요소=전체 발행가액-부채요소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를 먼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배분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연간 액면이자는 1,000,000원 × 2% = 20,000원이다.
2. 보장수익률 4%를 충족하는 만기상환액은 1,062,432원이다. 즉, 상환할증금은 62,432원이다.
3. 전환사채의 전체 발행가액은 20,000원 × 2.7232 + 1,062,432원 × 0.8638 = 972,192.7616원이므로 972,193원이다.
4. 부채요소는 20,000원 × 2.6730 + 1,062,432원 × 0.8396 = 945,477.9072원이므로 945,478원이다.
5. 자본요소는 972,193원 - 945,478원 = 26,715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4,507원은 전체 발행가액 972,193원에서 부채요소 945,478원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자본요소는 26,715원이다.
② O — 972,193원 - 945,478원 = 26,715원이므로 자본요소와 일치한다.
③ X — 27,807원은 액면금액 1,000,000원과 전체 발행가액 972,193원의 차이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자본요소는 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26,715원이다.
④ X — 54,522원은 액면금액 1,000,000원에서 부채요소 945,478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본요소 계산에서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전체 발행가액 972,193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26,715원이다.
⑤ X — 62,432원은 보장수익률 4%를 충족하기 위한 상환할증금이다. 전환권대가는 발행가액과 부채요소의 차액인 26,715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27,807원은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④의 54,522원은 액면금액과 부채요소의 차이, ⑤의 62,432원은 상환할증금이다. 전환권대가는 액면금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전체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평가한 부채요소를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장수익률로 만기상환액을 정한 뒤, 전환사채 시장이자율로 전체 발행가액을 계산하고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부채요소를 계산한다. 마지막에 전체 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면 자본요소가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 전환사채 전체 발행가액 - 일반사채 기준 부채요소이다.

NoteBase

문 14. (주)세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20x1년 4월 1일에 발행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주)세무는 20x2년 10월 1일에 액면금액 중 5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2,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 권면상 발행일: 20x1년 1월 1일 ◯ 액면이자율: 3%(매년 말 지급)
◯ 20x1년 1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5%
◯ 20x1년 4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4%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4%	5%
1	0.9615	0.9524	0.9615	0.9524
2	0.9246	0.9070	1.8861	1.8594
3	0.8890	0.8638	2.7751	2.7232

① ₩18,857 감소
② ₩49,823 감소
③ ₩58,103 감소
④ ₩79,257 감소
⑤ ₩85,368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채의 발행가액과 상각후원가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뒤, 조기상환손익과 해당 연도의 이자비용을 합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를 구하는 문제이다.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인 4%를 사용한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2,000,000원, 연간 액면이자는 60,000원(2,000,000원 × 3%), 유효이자율은 4%이다. 20x2년 10월 1일에 액면금액의 50%를 경과이자 포함 1,000,000원에 상환한다. 따라서 상환대가에서 분리할 경과이자는 22,500원(1,000,000원 × 3% × 9/12)이고, 사채 원금에 대응하는 상환대가는 977,5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4%에 따른 20x1년 1월 1일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2{,}000{,}000 \times 0.8890 + 60{,}000 \times 2.7751 = 1{,}944{,}506$
20x1년 유효이자비용은 77,780.24원이고 액면이자는 60,000원이므로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17,780.24원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962,286.24원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과 경과기간을 곱해 이자비용을 계산하며, 조기상환손익은 제거되는 장부금액과 경과이자를 제외한 상환대가의 차이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20x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사채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1{,}962{,}286.24 \times 4\% \times \frac{9}{12} = 58{,}868.59$
2. 같은 기간의 액면이자 발생액은 45,000원이므로 상환 직전 전체 사채의 장부금액은 1,976,154.83원이다. 이 중 50%의 장부금액은 988,077.41원이다.
3. 상환대가 1,000,000원 중 경과이자 22,500원을 제외하면 사채 상환대가는 977,500원이다. 따라서 조기상환이익은 다음과 같다.
$988{,}077.41 - 977{,}500 = 10{,}577.41$
4. 상환 후 남은 50% 사채의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1{,}962{,}286.24 \times 50\% \times 4\% \times \frac{3}{12} = 9{,}811.43$
5. 20x2년 이자비용 합계에서 조기상환이익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다음과 같다.
$58{,}868.59 + 9{,}811.43 - 10{,}577.41 = 58{,}102.61$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58,103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X — 18,857원 감소는 이자비용 합계 68,680.02원에서 조기상환이익 10,577.41원을 차감한 순감소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8,857원 → 올바르게는 58,103원 감소이다.
② X — 49,823원 감소는 계산된 순감소액 58,102.61원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 아니다. 틀린 금액 49,823원 → 올바르게는 58,103원 감소이다.
③ O — 20x2년 이자비용 68,680.02원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조기상환이익 10,577.41원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순효과는 58,103원 감소이다.
④ X — 79,257원 감소는 조기상환이익을 반영한 순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79,257원 → 올바르게는 58,103원 감소이다.
⑤ X — 85,368원 감소는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4%와 조기상환손익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금액 85,368원 → 올바르게는 58,103원 감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환대가 1,000,000원 전부를 사채 장부금액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 금액에는 경과이자 22,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분리한다. 또한 당기순이익 효과는 이자비용만이 아니라 조기상환이익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 20x1년 1월 1일의 5%는 실제 발행일 시장이자율이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도발행·중도상환 사채는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확인 → 직전 결산일 장부금액 계산 → 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과 장부금액 계산 → 상환대가에서 경과이자 분리 → 조기상환손익 계산 → 남은 사채의 이자비용 합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과이자 포함 상환액은 그대로 장부금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경과이자를 뺀 순수 상환대가와 제거되는 장부금액을 비교하고, 당기순이익 효과는 이자비용에서 상환이익을 차감한다.

NoteBase

문 15.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만기일: 20x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x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x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4	0.8227	0.7921	3.5460	3.4651

① ₩20,920 감소
② ₩53,947 감소
③ ₩103,947 감소
④ ₩120,920 감소
⑤ ₩153,947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지만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변경손익을 계산하고 당기 이자수익과 함께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경 직전 총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다. 20x2년부터 20x5년까지 매년 말 이자는 30,000원이고, 20x5년 말 원금 1,000,000원을 회수한다.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현금흐름은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가 아니라 최초 유효이자율 5%로 할인한다. (주)세무가 부담한 수수료 100,000원은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20x1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변경 후 총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30,000 × 3.5460 + 1,000,000 × 0.8227
변경손실은 변경 직전 총장부금액에서 변경 후 총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변경손익은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 이자수익은 1,000,000원 × 5% = 50,000원이다.
2. 변경 후 총장부금액은 30,000원 × 3.5460 + 1,000,000원 × 0.8227 = 929,080원이다.
3. 계약조건 변경손실은 1,000,000원 - 929,080원 = 70,920원이다.
4. 20x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이자수익 50,000원 - 변경손실 70,920원 = 20,920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O — 20x1년 이자수익 50,000원에서 변경손실 70,92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0,920원 감소한다.
② X — '53,947원 감소'는 변경된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 6%로 잘못 할인한 뒤 20x1년 이자수익 50,000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최초 유효이자율 5%로 할인하므로 20,920원 감소이다.
③ X — '103,947원 감소'는 시장이자율 6%로 계산한 변경손실만 반영하고 20x1년 이자수익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5%로 계산한 변경손실 70,920원과 이자수익 50,000원을 함께 반영하여 20,920원 감소이다.
④ X — '120,920원 감소'는 수수료 100,000원을 20x1년 비용으로 즉시 처리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수수료를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920원 감소이다.
⑤ X — '153,947원 감소'는 시장이자율 6%를 사용하고 수수료 100,000원까지 즉시 비용 처리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최초 유효이자율 5%를 사용하고 수수료를 장부금액에 반영하므로 20,92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와 최초 유효이자율 5%를 바꾸어 쓰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으면 최초 유효이자율 5%를 사용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묻고 있으므로 20x1년 이자수익 50,000원을 포함해야 하며, 발생한 수수료 10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즉시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제거되지 않으면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변경손익을 계산하고,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 등 이미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다.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제거 조건변경은 '변경 현금흐름·최초 유효이자율·수수료는 장부금액 조정'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금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일자	내역
20×1년 12월 1일	A사가 발행한 A주식(주당 액면금액 ₩3,000) 100주를 주당 ₩4,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취득수수료로 주당 ₩80을 별도로 지급함
20×1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5,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00임
20×2년 3월 15일	A사는 현금배당(주당 ₩150)과 주식배당(주당 0.2주)을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는 현금 ₩15,000과 A주식 20주를 수령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5,000임
20×2년 7월 1일	A주식의 50%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으며, 처분 관련 거래원가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20×2년 10월 1일	A사는 무상증자(주당 0.1주)를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가 현재 보유한 A주식의 수가 10% 증가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6,000임
20×2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7,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40임

① ₩349,800 증가

② ₩421,800 증가

③ ₩438,000 증가

④ ₩521,800 증가

⑤ ₩538,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배당, 처분손익 및 기말 평가손익을 각 연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주식배당·무상증자 후의 주식 수와 이동평균단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처분 거래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반영한다. 공정가치는 예상 처분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현금배당은 배당수익으로 반영하지만,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 주식 수만 늘리므로 종전 장부금액을 증가한 주식 수에 배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손익 영향=배당수익+처분손익+평가손익-거래원가
이동평균단가=처분 직전 장부금액처분 직전 보유주식 수
각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먼저 계산한 뒤 20x1년도와 20x2년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12월 1일 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은 100주 × 4,000원인 400,000원이다. 취득수수료 8,000원은 즉시 비용 처리한다.
2. 20x1년 말 공정가치는 100주 × 5,000원인 500,000원이므로 평가이익은 100,000원이다. 예상 처분 거래원가 10,000원은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20x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100,000원 - 8,000원 = 92,000원 증가이다.
3. 20x2년 3월 15일 현금배당수익은 100주 × 150원 = 15,000원이다. 주식배당으로 20주를 받아 총 120주가 되지만,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500,000원으로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동평균단가는 500,000원 ÷ 120주이다.
4. 20x2년 7월 1일 120주의 50%인 60주를 처분한다. 처분한 주식의 장부금액은 500,000원 × 50% = 250,000원이고, 처분대금은 60주 × 6,000원 = 36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은 110,000원이다. 처분 거래원가는 60주 × 120원 = 7,200원으로 비용 처리한다. 처분 후 60주의 장부금액은 250,000원이다.
5. 20x2년 10월 1일 무상증자로 보유 주식 수가 10% 증가하여 66주가 된다. 무상증자 자체로 수익이나 장부금액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6. 20x2년 말 공정가치는 66주 × 7,000원 = 462,000원이다. 남은 주식의 장부금액 250,000원과 비교한 평가이익은 212,000원이다.
7. 20x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15,000원 + 110,000원 - 7,200원 + 212,000원 = 329,800원 증가이다. 두 연도의 합계는 92,000원 + 329,800원 = 421,800원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 두 연도의 손익 구성액을 모두 반영하면 421,800원 증가이므로 '₩349,800 증가'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421,800 증가'이다.
② O - 20x1년 92,000원 증가와 20x2년 329,800원 증가의 합계가 421,800원 증가이다.
③ X - 현금배당, 처분이익, 두 번의 거래원가 및 기말 평가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합계는 421,800원이므로 '₩438,000 증가'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421,800 증가'이다.
④ X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그 자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521,800 증가'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421,800 증가'이다.
⑤ X - 예상 처분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서 미리 차감하지 않고, 실제 거래원가는 발생 시 비용 처리하므로 '₩538,000 증가'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421,800 증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0x1년 말의 예상 처분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거나, 주식배당·무상증자를 배당수익으로 처리하면 손익이 왜곡된다. 또한 7월 1일 처분수량은 주식배당 후 120주의 50%인 60주이고, 10월 1일 무상증자 후 기말 보유수량은 66주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거래일별 보유주식 수와 장부금액을 추적한다. 주식배당·무상증자는 총장부금액을 유지한 채 주식 수만 조정하고, 실제 처분 시에는 이동평균단가로 처분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및 실제 거래원가를 연도별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 처리한다. 주식배당·무상증자는 수익이 아니라 주식 수와 단가의 조정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x1년 1월 1일 (주)세무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당기순이익 평균이 ₩1,050,000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 ₩3,000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0x1년 1월 1일 (주)세무는 신주인수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4,000이고 20x1년도 보통주식의 주당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종가	12월 31일 종가	1월 1일 ~ 12월 31일 평균주가
₩4,000	₩6,000	₩5,000

20x1년 9월 1일에 신주인수권 600개가 행사되어 (주)세무는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였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470,000이다.
(주)세무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희석주당이익은?

① ₩134
② ₩140
③ ₩142
④ ₩144
⑤ ₩14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발행주식은 월할 계산하고, 신주인수권의 희석효과는 자기주식법으로,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분모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1,470,000원이다.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9월 1일 신주인수권 행사로 600주가 실제 발행되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4,000원, 연평균 시장가격은 5,000원이다.
사업결합 조건부발행약정은 평균 당기순이익이 1,050,000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 3,000원당 1주를 발행하는 조건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실제 발행시점부터 월할 계산한다.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는 자기주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증분주식수=가중평균 신주인수권 수×평균시장가격-행사가격평균시장가격
희석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희석주당이익=조정 후 당기순이익기본 가중평균주식수+잠재적 보통주의 증분주식수
신주인수권과 조건부발행보통주로 인한 당기순이익 조정은 없으므로 분자에는 1,470,000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기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600×(4)/(12)=10,200주
9월 1일 발행된 600주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반영한다.

2. 신주인수권의 희석효과
9월 1일에 600개가 행사되었으므로 1,000개는 8개월, 남은 400개는 4개월 동안 존재한다.
1,000×(8)/(12)+400×(4)/(12)=800개
800×5,000-4,0005,000=160주

3. 조건부발행보통주
보고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말이라고 가정하여 20x1년 실적 수준을 적용한다.
1,470,000-1,050,0003,000=140주

4. 희석주당이익
1,470,00010,200+160+140=1,470,00010,500=140원

선지 판단

① X — 134원은 계산된 희석주당이익 140원과 다르다. 희석 분모는 10,500주이므로 '134원'은 '140원'으로 고쳐야 한다. 134원은 실제 발행주식이나 잠재적 보통주를 월할·증분 기준보다 과다하게 분모에 반영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② O — 희석 가중평균주식수 10,500주로 당기순이익 1,470,000원을 나누면 140원이므로 옳다.
③ X — 142원은 조건부발행보통주 140주를 누락하고 10,360주만 분모에 반영하면 반올림되어 나오는 값이다. '142원'은 '14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144원은 실제 발행된 600주의 월할 효과만 반영한 기본주당이익을 반올림한 값이다.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 160주와 조건부발행보통주 140주도 반영해야 하므로 '144원'은 '14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47원은 기초 주식수 10,000주만 분모로 사용한 값이다. 실제 발행주식의 월할 효과와 두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를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147원'은 '140원'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9월 1일 행사된 600주를 기본 가중평균주식수에서는 4개월만 반영하면서, 신주인수권의 희석효과를 구할 때에는 행사 전 1,000개와 행사 후 남은 400개의 존속기간을 각각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주인수권 800개 전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법에 따른 증분주식수 160주만 더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 140주를 빠뜨리면 ③의 142원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희석주당이익은 먼저 실제 발행주식을 월할하여 기본 분모를 구한 뒤, 신주인수권은 가중평균 수량에 자기주식법을 적용하고, 조건부발행약정은 보고기간 말 현재 발행될 주식수를 계산하여 차례로 더한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적 보통주가 분자 조정을 일으키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실제 발행은 월할,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법의 증분주식, 조건부발행은 보고기간 말 조건 충족 가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주)세무는 20x1년 초 (주)대한의 보통주 60%를 ₩12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주)세무의 20x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고
재고자산(상품)	₩20,000	₩30,000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
기계장치	50,000	80,000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잔존내용연수 5년

○ 20x1년 중 (주)세무와 (주)대한의 재고자산(제품)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판매회사 → 매입회사	판매회사		매입회사
	매출액	매출원가	장부상 기말재고
(주)세무 → (주)대한	₩20,000	₩16,000	₩10,000

○ (주)세무와 (주)대한이 20x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20,000이다.
○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① ₩76,800
② ₩77,600
③ ₩79,200
④ ₩81,600
⑤ ₩8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취득일 비지배지분을 구한 뒤, 공정가치 조정을 반영한 종속기업의 취득 후 순이익 중 비지배주주 지분을 더하는 문제이다. 하향판매의 미실현이익 제거는 지배기업 이익을 조정하므로 비지배지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NoteBase

조건 정리

취득일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 150,000원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
기계장치 공정가치 증가액: 30,000원, 잔존내용연수 5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20,000원
비지배주주 지분율: 40%
내부거래 방향: 지배기업인 (주)세무에서 종속기업인 (주)대한으로의 하향판매

사용할 공식

기말 비지배지분=취득일 비지배지분+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40\%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하므로 취득일 순자산 공정가치에 40%를 곱한다. 이후 종속기업의 취득 후 조정이익 중 40%만 비지배지분에 귀속한다.

계산 과정

1. 취득일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150,000원 + 10,000원 + 30,000원 = 190,000원이다. 따라서 취득일 비지배지분은 190,000원 × 40% = 76,000원이다.
2.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은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되었으므로 매출원가가 10,000원 증가하고 종속기업 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3. 기계장치의 추가 감가상각비는 30,000원 ÷ 5년 = 6,000원이며 종속기업 이익에서 차감한다.
4.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은 20,000원 - 10,000원 - 6,000원 = 4,000원이다.
5. 내부거래의 미실현이익은 4,000원 × (기말재고 10,000원 ÷ 매출액 20,000원) = 2,000원이다. 그러나 지배기업이 판매한 하향판매이므로 이 제거액은 지배기업 이익에 귀속되어 비지배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기말 비지배지분은 76,000원 + 4,000원 × 40% = 77,6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76,800원은 하향판매 미실현이익 2,000원을 종속기업 이익에서도 잘못 차감하여 76,000원 + (4,000원 - 2,000원) × 40%로 계산한 값이다. 하향판매 제거액은 비지배지분에 배분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금액은 77,600원이다.
② O — 취득일 비지배지분 76,000원에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4,000원의 40%인 1,600원을 더하면 77,600원이다.
③ X — 79,200원은 기계장치 공정가치 증가분의 추가 감가상각비 6,000원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된 조정에서 나오는 값이다. 추가 감가상각비를 종속기업 이익에서 차감하고 하향판매 제거액은 배분하지 않아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77,600원이다.
④ X — 81,600원은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이 외부판매되어 매출원가로 실현된 사실을 누락하고 76,000원 + (20,000원 - 6,000원) × 40%로 계산한 값이다. 재고자산 조정 10,000원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77,600원이다.
⑤ X — 84,000원은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20,000원을 공정가치 차이 조정 없이 그대로 배분하여 76,000원 + 20,000원 × 40%로 계산한 값이다. 재고자산 조정 10,000원과 추가 감가상각비 6,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77,6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하향판매 미실현이익 2,000원을 비지배지분에도 배분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지배기업이면 미실현이익 제거는 지배기업 이익만 줄인다. 또한 취득일 공정가치 증가액은 취득 후 외부판매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되는 만큼 종속기업의 조정이익에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득일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여 기초 비지배지분을 구한다. 다음으로 종속기업 순이익에서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의 당기 실현액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의 판매자가 지배기업인지 종속기업인지 확인하여, 상향판매일 때만 미실현이익 제거액을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몫이다. 공정가치 차이의 당기 실현액은 종속기업 이익을 조정하고, 하향판매 제거액은 지배기업 몫만 조정한다.

NoteBase

문 19. (주)세무는 차량운반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x1년 초 (주)대한에게 차량운반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주)세무는 ₩1,000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차량운반구 판매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300,000이며, 제조원가(장부금액)는 ₩1,000,000이다.
◯ 차량운반구의 20x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이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를 20x1년 초부터 20x3년 말까지 사용한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 사용료 ₩500,000을 매년 말 지급한다.
◯ (주)대한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차량운반구를 (주)세무에게 반환한다.
◯ 20x1년 초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5%이고, 시장이자율은 10%이며, 내재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2	2.4869

① ₩393,091 증가
② ₩394,091 증가
③ ₩408,117 증가
④ ₩409,117 증가
⑤ ₩423,143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에서 내재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을 때 시장이자율로 판매손익과 금융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리스료는 매년 말 500,000원씩 3회 지급된다. 잔존가치 50,000원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원이고, 무보증잔존가치는 20,000원이다. 내재이자율 5%가 인위적으로 낮으므로 시장이자율 10%의 현가계수인 정상연금 2.4869와 단일금액 0.7513을 적용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부담한 원가 1,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용할 공식

판매수익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매출원가 = 기초자산의 장부금액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리스순투자 = 판매수익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당기순이익 증가액 = 판매이익 + 이자수익 - 리스계약단계 원가

인위적으로 낮은 내재이자율을 그대로 쓰면 판매이익이 과대계상되므로 시장이자율 10%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판매수익은 500,000원 × 2.4869 + 30,000원 × 0.7513 = 1,265,989원이다.
2.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20,000원 × 0.7513 = 15,026원이고, 매출원가는 1,000,000원 - 15,026원 = 984,974원이다.
3. 판매이익은 1,265,989원 - 984,974원 = 281,015원이다.
4. 리스순투자는 1,265,989원 + 15,026원 = 1,281,015원이고, 20x1년 이자수익은 1,281,015원 × 10% = 128,101.5원이므로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128,102원이다.
5.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281,015원 + 128,102원 - 1,000원 = 408,117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93,091원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15,026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약단계 원가 1,000원만 비용 처리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408,117원 증가로 계산한다.
② X — 394,091원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단계 원가 1,000원도 비용 처리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408,117원 증가로 계산한다.
③ O — 시장이자율 10%로 계산한 판매이익 281,015원과 이자수익 128,102원을 더하고 계약단계 원가 1,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408,117원 증가한다.
④ X — 409,117원은 계약단계 원가 1,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1,000원을 비용 처리하여 408,117원 증가로 계산한다.
⑤ X — 423,143원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15,026원을 판매이익 계산에 반영한 뒤 다시 이익에 중복하여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이 금액을 매출원가 차감과 리스순투자 측정에만 반영하여 408,117원 증가로 계산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인위적으로 낮은 내재이자율 5%가 제시되어 있어도 시장이자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점, 계약단계 원가 1,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특히 ④의 409,117원은 마지막 1,000원 차감을 빠뜨리면 바로 나오는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적용 이자율을 먼저 결정한 뒤 판매수익, 무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매출원가, 리스순투자에 대한 이자수익, 계약단계 원가의 순서로 계산한다. 내재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다는 조건이 있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인위적 저금리이면 시장금리, 무보증잔존가치는 매출원가에서 차감, 계약단계 원가는 즉시 비용이다.

NoteBase

문 20. (주)세무는 20x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20x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x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구분	기계장치	5년간 유지보수용역
개별 판매가격	₩1,500,000	₩500,000

① 20x1년: ₩1,440,000 / 20x2년: ₩50,000

② 20x1년: ₩1,440,000 / 20x2년: ₩90,000

③ 20x1년: ₩1,590,000 / 20x2년: ₩50,000

④ 20x1년: ₩1,590,000 / 20x2년: ₩90,000

⑤ 20x1년: ₩1,590,000 / 20x2년: ₩1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초 계약의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하고, 서로 구별되는 잔여 용역의 범위와 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수익을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초 거래가격: 1,800,000원
개별 판매가격: 기계장치 1,500,000원, 5년간 유지보수용역 500,000원
최초 배분비율: 기계장치 75%, 유지보수용역 25%
20x1년 초 기계장치의 통제가 이전되고, 20x1년 중 유지보수용역 1년분이 이행된다.
20x2년 초에는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용역과 구별되는 잔여 4년의 축소된 유지보수용역 대가가 200,000원으로 변경되며,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최초 배분액은 다음과 같다.
수행의무 배분액=거래가격×해당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개별 판매가격 합계
변경 후 연간 유지보수수익은 다음과 같다.
연간 유지보수수익=변경된 잔여 용역의 대가잔여 제공기간
최초 계약에서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2,000,000원이므로 거래가격을 각각 75%와 25%로 배분한다. 계약변경 후 제공할 용역은 이미 이전한 기계장치 및 변경 전에 제공한 용역과 구별되므로 변경된 잔여 용역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계산 과정

1. 기계장치 배분액은 1,8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 = 1,350,000원이다.
2. 5년간 유지보수용역 배분액은 1,800,000원 × 500,000원 ÷ 2,000,000원 = 450,000원이고, 20x1년의 1년분은 450,000원 ÷ 5년 = 90,000원이다.
3. 따라서 20x1년 수익은 1,350,000원 + 90,000원 = 1,440,000원이다.
4. 변경 후 잔여 4년의 유지보수용역 대가는 200,000원이므로 20x2년 수익은 200,000원 ÷ 4년 = 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20x1년 수익은 1,440,000원이고 20x2년 수익은 50,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 '20x2년: 90,000원'이 틀렸다. 90,000원은 최초 계약에서 배분된 연간 유지보수수익이며, 변경 후에는 축소된 잔여 용역 대가 200,000원을 4년에 배분하므로 올바르게는 '20x2년: 50,000원'이다.
③ X — '20x1년: 1,590,000원'이 틀렸다. 이는 기계장치 수익을 거래가격 1,800,000원의 75%인 1,350,000원이 아니라 개별 판매가격 1,500,000원으로 인식하여 1년분 유지보수수익 90,000원을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1,440,000원'이다.
④ X — '20x1년: 1,590,000원'과 '20x2년: 90,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최초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하여 20x1년에 1,440,000원을 인식하고, 변경된 잔여 용역 대가를 4년에 배분하여 20x2년에 50,000원을 인식한다.
⑤ X — '20x1년: 1,590,000원'과 '20x2년: 100,000원'이 모두 틀렸다. 20x1년의 올바른 금액은 1,440,000원이다. 또한 20x2년의 올바른 금액은 200,000원을 2년이 아니라 잔여 4년에 배분한 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기계장치 수익을 개별 판매가격 1,500,000원 그대로 인식하는 것과, 계약변경 전의 연간 유지보수수익 90,000원을 변경 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다. 최초 계약에서는 거래가격 1,800,000원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하고, 변경 후에는 축소된 잔여 용역의 대가 200,000원을 잔여 4년에 새로 배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최초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 다음으로 계약변경 후 재화나 용역이 이미 이전한 것과 구별되는지를 확인한다. 구별된다면 변경된 잔여 대가와 잔여 이행기간을 기준으로 변경일 이후 수익을 전진적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최초 계약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하고, 구별되는 잔여 용역의 변경은 변경 후 대가를 남은 기간에 전진적으로 배분한다.

NoteBase

문 2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⑤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 원칙인 상계 금지, 재무제표의 목적, 공정한 표시, 계속기업 및 중요성의 적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는 단순히 기준서에 열거된 항목을 모두 나열하는 절차가 아니다.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계속기업 여부와 중요성을 판단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공정하게 표시한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다른 기준서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O — 재무제표는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O —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하면서 공시,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그 회계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적절한 회계정책 자체를 적용해야 한다.
④ O — 경영진은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보고기간말부터 적어도 향후 12개월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공시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기준서에 적힌 공시 요구를 예외 없는 점검표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공시 여부에는 중요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준서가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반드시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문제에서는 먼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한다.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가능하고, 특정 공시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만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상계는 허용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시는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NoteBase

문 22. 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

②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④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

⑤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사업의 구성요소, 취득법, 취득일,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측정 및 우발부채의 인식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업은 최소한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산출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다. 산출물은 사업의 구성요소이지만, 취득일 현재 산출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법은 취득자를 식별하고, 취득일을 결정하며, 식별가능 자산·인수 부채 등을 인식·측정한 뒤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취득일은 법적 형식보다 지배력을 실제로 획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업은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투입물·과정·산출물이 사업의 세 요소이다. 다만 산출물은 취득일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사업이 될 수 있다.
② O — 취득법의 측정 원칙에 따라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원칙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O —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도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거래가 사업결합이면 취득법을 적용한다. 지배력 획득이 핵심이지 대가 이전이 필수요건인 것은 아니다.
④ X — 틀린 부분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이다. 취득일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며, 일반적으로 종료일과 같지만 계약 내용과 관련 사실에 따라 종료일보다 이르거나 늦을 수 있다.
⑤ O — 인수한 우발부채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다. 사업결합에서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이 인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일반적으로 종료일이 취득일이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종료일만 취득일이다'로 바꾼 선지이다. 일반적인 시점과 예외 없는 절대적 시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또한 ⑤는 통상적인 충당부채 인식의 개연성 요건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업결합의 날짜는 대가 이전일이나 법적 종료일이라는 명칭만 보지 않고 실제 지배력 획득일을 확인한다.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인지와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취득일은 지배력 획득일이고, 종료일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다.

NoteBase

문 2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③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부채의 인식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과, 인식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주석 공시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식은 자산·부채 등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금액으로 포함하는 과정이다. 자산이나 부채는 그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할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식하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이나 관련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인식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정보의 제공·사용 원가를 정당화하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유용성이 항목과 사실·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확히 정할 수 없다.
② O —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 항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 항목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 미인식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정보가 불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O —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적합하지만, 특정 자산이나 부채와 그에 따른 수익·비용·자본변동의 인식이 모든 경우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이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을 때 발생 가능한 유입의 크기·시기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가장 목적적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⑤ O —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은 목적적합한 정보뿐 아니라 해당 자산·부채 및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비용·자본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할 때 적절하다. 유용한 정보에는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모두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으면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낮은 가능성은 자산 인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유입의 크기·시기·가능성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제공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식 문제에서는 먼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모두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석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유입가능성이 낮다'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인식은 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원가 제약을 함께 보고, 미인식 항목도 주석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NoteBase

문 24.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②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지만,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진다.

③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 포함한다.

④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⑤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보유목적이 다르므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현금흐름정보의 효용과 현금흐름의 활동별 분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금흐름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과거 예측의 검증에 유용하며, 서로 다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줄여 기업 간 영업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사이의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확실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과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했는지 검증하며, 수익성과 순현금흐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진다'이다.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한 영향을 제거하므로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③ X — 틀린 표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와 '현금흐름에 포함한다'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 항목 간 이동은 기업의 현금관리이므로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이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판매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는 부분이다.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그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서로 다른 회계처리의 영향이 제거되면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처럼 방향을 뒤집었다. ③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내부의 이동을 외부 거래에서 생긴 현금흐름과 혼동하게 하며, ⑤는 '유가증권'이라는 명칭만 보고 투자활동으로 고르게 한다. 단기매매목적이라는 보유 목적이 분류를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금흐름정보의 효용에 관한 진술인지 활동별 분류에 관한 진술인지 구분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내부 이동은 제외하고, 단기매매목적 증권의 매매는 재고자산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영업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흐름정보는 예측·검증·비교에 유용하고, 현금성자산 내부 이동은 제외하며, 단기매매증권은 영업활동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의 20x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며, 매출액은 ₩300,000이다. (주)세무의 20x1년 매출총이익은?

재고자산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 공 품	25,000	34,000
제 품	44,000	20,000

전환원가

	당기 지급액	기초		기말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직접노무원가	₩25,000	₩2,500	-	₩1,500	-
수도광열비	30,000	2,500	-	-	₩10,000
복리후생비	15,000	-	₩3,500	-	8,000

① ₩110,000

② ₩120,000

③ ₩156,000

④ ₩180,000

⑤ ₩19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금 지급액을 발생주의 전환원가로 조정한 뒤 재료사용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를 차례로 계산하여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재료: 기초 20,000원, 당기 매입 90,000원, 기말 30,000원이다.
재공품: 기초 25,000원, 기말 34,000원이다.
제품: 기초 44,000원, 기말 20,000원이다.
당기 지급액은 직접노무원가 25,000원, 수도광열비 30,000원, 복리후생비 15,000원이다.
전환원가는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당기에 발생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비용의 당기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당기 발생액=당기 지급액+기말 미지급비용-기초 미지급비용+기초 선급비용-기말 선급비용
또한 다음 원가 흐름을 적용한다.
재료사용액=기초 직접재료+당기 매입액-기말 직접재료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 재공품+재료사용액+전환원가-기말 재공품
매출원가=기초 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 제품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재료는 투입·사용 흐름을, 재공품과 제품은 각각 완성 및 판매 흐름을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25,000원 - 2,500원 - 1,500원 = 21,000원이다. 기초 미지급비용과 기말 선급비용은 당기 발생액에서 뺀다.
2. 수도광열비 발생액은 30,000원 + 10,000원 - 2,500원 = 37,500원이다.
3.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15,000원 + 8,000원 + 3,500원 = 26,500원이다. 기초 선급비용은 당기에 소비된 금액이므로 더한다.
4. 전환원가는 21,000원 + 37,500원 + 26,500원 = 85,000원이다.
5. 재료사용액은 20,000원 + 90,000원 - 30,000원 = 80,000원이다.
6.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5,000원 + 80,000원 + 85,000원 - 34,000원 = 156,000원이다.
7. 매출원가는 44,000원 + 156,000원 - 20,000원 = 180,000원이다.
8. 매출총이익은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매출총이익은 11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다. 전환원가를 발생주의로 조정하고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을 모두 반영하면 매출원가는 180,000원이 된다.
② O — 계산된 매출원가 180,000원을 매출액 300,000원에서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120,000원이다.
③ X — 156,000원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올바른 매출총이익은 120,000원이다.
④ X — 180,000원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올바르게는 이 금액을 매출액 300,000원에서 차감하여 매출총이익 120,000원을 구한다.
⑤ X — 매출총이익은 19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다. 재료사용액 80,000원과 전환원가 85,000원을 재공품·제품 원가 흐름에 반영한 매출원가는 18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156,000원은 당기제품제조원가, ④의 180,000원은 매출원가로서 계산 중간값이다. 또한 미지급비용은 기말을 더하고 기초를 빼며, 선급비용은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는 부호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 지급액을 발생액으로 조정한 뒤 재료사용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의 순서로 계산하고, 각 단계의 중간값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지급액의 발생주의 조정은 '기말 미지급 더하기, 기초 미지급 빼기, 기초 선급 더하기, 기말 선급 빼기'이다. 원가 흐름은 '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이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으로, 직접노무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x1년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기말 제품재고금액은?

◯ 20x1년 중 작업 #201, #202, #203을 착수하였다.
◯ 20x1년 중 작업별 실제발생한 원가 및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201	#202	#203	합계
직접재료원가	₩27,500	₩28,000	₩4,500	₩60,000
직접노무원가	₩50,000	₩54,000	₩26,000	₩130,000
직접노무시간	2,000시간	2,0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

◯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120,000이다.
◯ 20x1년 중 작업 #201과 #202는 완성되었으나, #203은 20x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 작업 #201은 20x1년 중에 판매되었으나, #202는 20x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주)세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경우,

① ₩125,500
② ₩129,500
③ ₩130,000
④ ₩132,000
⑤ ₩134,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율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 뒤, 과대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여 기말 제품재고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100,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4,000시간이다. 작업 #201은 판매되었으므로 매출원가, 작업 #202는 완성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제품재고, 작업 #203은 미완성이므로 재공품재고에 해당한다.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에서는 배부차이를 각 계정에 포함된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비율로 나눈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예정배부율=100,0004,000=25원/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실제발생액과 배부액의 차이이다. 실제발생액보다 배부액이 크면 과대배부이며, 관련 재고와 매출원가를 감소시킨다. 이 문제는 제품재고인 작업 #202에 포함된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비율만큼 과대배부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작업별 배부 제조간접원가는 #201 50,000원, #202 50,000원, #203 25,000원이며, 총배부액은 125,000원이다.
2. 총배부액 125,000원이 실제발생액 120,000원보다 5,000원 크므로 제조간접원가는 5,000원 과대배부되었다.
3. 작업 #202의 조정 전 제품원가는 28,000원 + 54,000원 + 50,000원 = 132,000원이다.
4. 제품재고에 배분되는 과대배부액은 다음과 같다.
5,000×50,000125,000=2,000원
5. 과대배부액은 제품재고를 감소시키므로 기말 제품재고는 132,000원 - 2,000원 = 1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25,500원은 작업 #202의 조정 전 원가 132,000원에서 이 작업에 배분되는 과대배부액 2,000원만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125,500원은 13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129,500원은 과대배부액을 배부 제조간접원가 125,000원의 구성비로 나눈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작업 #202의 배분액은 2,000원이므로 129,500원은 13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작업 #202의 조정 전 원가 132,000원에서 과대배부액 배분분 2,000원을 차감하면 130,000원이다.
④ X. 132,000원은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 작업 #202의 원가이다. 틀린 금액 132,000원은 과대배부액 2,000원을 차감한 13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134,000원은 과대배부액 2,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금액이다. 틀린 금액 134,000원은 13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④의 132,000원을 그대로 고르는 것이다. 이는 작업 #202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 50,000원을 포함한 조정 전 원가일 뿐이다. 또한 배부액 125,000원이 실제발생액 120,000원보다 크므로 과대배부이며, 제품재고에 배분된 2,000원은 더하지 않고 차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상원가계산의 배부차이 문제는 예정배부율 산정 → 작업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 실제발생액과 총배부액 비교 → 재공품·제품·매출원가의 배부 제조간접원가 비율로 차이 배분 → 과소배부는 가산하고 과대배부는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는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비율을 사용하며, 과대배부는 재고와 매출원가에서 뺀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500kg$일 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5kg
◯ 직접재료 표준가격: ₩10/kg
◯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15/kg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12,5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5,000(유리)

① 400단위
② 600단위
③ 800단위
④ 1,000단위
⑤ 1,200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료가격차이로 실제 구입량을 구하고, 기말재료 재고량을 차감해 실제 사용량을 계산한 뒤, 재료능률차이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수량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단위당 표준투입량: $2.5kg$
표준가격: 10원/kg
실제 구입가격: 15원/kg
구입가격차이: 12,500원(불리)
능률차이: 5,000원(유리)
기초재료 재고량: 영업 개시 연도이므로 $0kg$
기말재료 재고량: $500kg$
구해야 할 값: 실제 제품 생산량

NoteBase

사용할 공식

재료구입가격차이:
실제 구입량×(실제가격-표준가격)
재료능률차이:
표준가격×(실제 사용량-허용 표준수량)
허용 표준수량:
실제 생산량×단위당 표준투입량
구입가격차이는 실제 구입량을 기준으로 제시되므로 먼저 실제 구입량을 구한다. 능률차이는 생산에 실제 사용한 수량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수량의 차이를 표준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생산량을 역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구입가격차이 12,500원은 불리하므로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높은 차이를 사용한다.
12,500=실제 구입량×(15-10)
따라서 실제 구입량은 $2{,}500kg$이다.

2. 영업 개시 연도이므로 기초재료 재고는 없다.
실제 사용량=0+2,500-500=2,000 kg

3. 능률차이 5,000원은 유리하므로 실제 사용량이 허용 표준수량보다 $500kg$ 적다.
5,000=10×(허용 표준수량-2,000)
따라서 허용 표준수량은 $2{,}500kg$이다.

4. 제품 한 단위에 $2.5kg$이 표준 투입되므로 실제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실제 생산량=2,500 kg2.5 kg/단위=1,000단위

선지 판단

① X. 계산된 실제 생산량은 1,000단위이므로 400단위는 맞지 않는다. 틀린 값 400단위 → 올바른 값 1,000단위이다.
② X. 허용 표준수량 $2{,}500kg$을 단위당 표준투입량 2.5 kg/단위으로 나누면 1,000단위이므로 600단위는 맞지 않는다. 틀린 값 600단위 → 올바른 값 1,000단위이다.
③ X. 실제 사용량 $2{,}000kg$을 바로 단위당 표준투입량으로 나누면 800단위가 나오지만, 능률차이가 유리하므로 허용 표준수량은 실제 사용량보다 커야 한다. 틀린 값 800단위 → 올바른 값 1,000단위이다.
④ O. 능률차이로 구한 허용 표준수량 $2{,}500kg$을 단위당 표준투입량 2.5 kg/단위으로 나누면 1,000단위이다.
⑤ X. 계산된 실제 생산량은 1,000단위이므로 1,200단위는 맞지 않는다. 틀린 값 1,200단위 → 올바른 값 1,000단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800단위는 실제 사용량 2,000*kg*을 단위당 표준투입량으로 곧바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수량은 능률차이를 반영해 구해야 한다. 또한 구입가격차이의 수량 기준은 실제 구입량이고, 능률차이의 수량 기준은 실제 사용량이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입가격차이로 실제 구입량을 구한 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반영해 실제 사용량을 계산한다. 이어 능률차이의 유리·불리 방향으로 허용 표준수량을 구하고, 이를 단위당 표준투입량으로 나누어 생산량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차이는 구입량, 능률차이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유리한 능률차이에서는 허용 표준수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크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1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기말재공품 원가는?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4,750kg(50%)
당기 착수	45,000
당기 완성	36,000
기말재공품	9,400(60%)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11,200	₩18,000
당기발생원가	90,000	195,750

① ₩47,000

② ₩57,800

③ ₩83,000

④ ₩93,800

⑤ ₩108,2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상적인 증발감손을 물량 흐름에 반영한 뒤, 선입선출법으로 당기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가를 구하여 기말재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투입물량은 기초재공품 $4,750kg$과 당기 착수량 $45,000kg$의 합계인 $49,750kg$이다.
당기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합계는 $36,000 + 9,400 = 45,400kg$이므로 정상 증발량은
$49,750 - 45,400 = 4,350kg$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60%이다. 선입선출법이므로 단위당 당기원가 계산에는 당기 발생원가만 사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은 $45,000 - 4,350 = 40,650kg$이다.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다음과 같다.
$36,000 - (4,750 \times 50\%) + (9,400 \times 60\%) = 39,265kg$
단위당 당기원가는 당기 발생원가÷당기 완성품환산량으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선입선출법이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와 당기에 추가된 원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의 단위당 당기원가는 $90,000 \div 40,650 \approx 2$이므로 약 2원이다.
2. 전환원가의 단위당 당기원가는 $195,750 \div 39,265 \approx 5$이므로 약 5원이다.
3.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 $9,400kg$에 단위당 2원을 곱하면 직접재료원가는 18,800원이다.
4.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9,400 \times 60\% = 5,640kg$이고, 여기에 단위당 5원을 곱하면 전환원가는 28,200원이다.
5. 따라서 기말재공품 원가는 18,800원 + 28,200원 = 47,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가 ₩47,000이므로 옳다.
② X — ₩57,800은 직접재료원가 ₩18,800과 전환원가 ₩28,200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57,800은 올바르게는 ₩47,000이다.
③ X — ₩83,000은 기말재공품의 재료원가와 전환원가만 배분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금액 ₩83,000은 올바르게는 ₩47,000이다.
④ X — ₩93,800은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에 60% 완성도를 적용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93,800은 올바르게는 ₩47,000이다.
⑤ X — ₩108,200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당기 발생원가만으로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가 아니다. 틀린 금액 ₩108,200은 올바르게는 ₩47,000이다.

오답 포인트

물량 차이 $4,350kg$을 누락하면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을 잘못 구하게 된다. 또한 전환원가에서는 기초재공품의 기초 완성분 50%를 제외하고 기말재공품에는 60%만 반영해야 한다. 기초재공품에 들어 있는 전기 원가 ₩11,200과 ₩18,000을 당기 단위당 원가의 분자에 다시 포함하는 것도 선입선출법에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투입물량과 산출물량의 차이로 정상감손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 직접재료와 전환원가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을 각각 계산하고, 당기 발생원가를 그 환산량으로 나눈 단가를 기말재공품의 각 환산량에 곱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전기 원가와 당기 원가를 분리한다. 재료는 투입시점, 전환원가는 완성도, 정상감손은 물량 흐름을 먼저 확인한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생산량	판매량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제품 A	2,000단위	1,800단위	₩40,000	₩70
제품 B	2,500	2,100	25,000	30
부산물 C	200	200	-	15

① ₩6,880

② ₩7,600

③ ₩36,120

④ ₩68,400

⑤ ₩71,1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주산물 A와 B의 분리점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제품 A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완성품에 배부할 결합원가: 당기투입원가 60,500원 - 기말재공품원가 4,500원
부산물 C: 생산량 2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15원, 단위당 판매비 5원
제품 A: 생산량 2,000단위, 판매량 1,800단위, 추가가공원가 40,000원,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70원
제품 B: 생산량 2,500단위, 추가가공원가 25,000원,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30원
주의할 조건: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C의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를 당기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부산물 순실현가치 = 생산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판매비)
주산물의 분리점 순실현가치 = 최종 판매가치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제품 A 배분 결합원가 = 배분 대상 결합원가 × A의 순실현가치 ÷ (A와 B의 순실현가치 합계)
제품 A 매출원가 = A의 배분 결합원가 + A의 추가가공원가 - A의 기말제품재고원가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직접 알 수 없을 때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분리점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완성품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60,500원 - 4,500원 = 56,000원이다.
2.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는 200단위 × (15원 - 5원) = 2,000원이다. 따라서 주산물 A와 B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56,000원 - 2,000원 = 54,000원이다.
3. A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2,000단위 × 70원 - 40,000원 = 100,000원이고, B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2,500단위 × 30원 - 25,000원 = 50,000원이다. 배분비율은 A:B = 2:1이다.
4.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54,000원 × 2/3 = 36,000원이다. 추가가공원가를 포함한 A의 총제품원가는 36,000원 + 40,000원 = 76,000원이고, 단위당 원가는 76,000원 ÷ 2,000단위 = 38원이다.
5. A의 기말제품은 2,000단위 - 1,800단위 = 200단위이므로 기말제품재고원가는 200단위 × 38원 = 7,600원이다. 따라서 A의 매출원가는 76,000원 - 7,600원 = 68,4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6,880원은 계산된 제품 A의 매출원가 68,400원과 다르다. 올바른 금액은 68,400원이다.
② X — 7,600원은 제품 A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매되지 않은 200단위의 기말제품재고원가이다. 올바른 매출원가는 68,400원이다.
③ X — 36,120원은 제품 A의 매출원가가 아니다. 제품 A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36,000원이며, 매출원가는 추가가공원가와 기말제품재고까지 반영한 68,400원이다.
④ O — 제품 A의 총제품원가 76,000원에서 기말제품재고원가 7,600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68,400원이다.
⑤ X — 71,100원은 부산물 순실현가치 차감과 기말제품재고 반영을 거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68,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7,600원은 매출원가가 아니라 기말제품재고원가이다. 또한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 2,000원은 주산물에 배분하기 전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하며, 순실현가치 배분에는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사용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투입원가에서 기말재공품원가와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뒤, 주산물별 생산량 기준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배분비율을 구한다. 이후 각 주산물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된다.

암기 포인트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먼저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주산물 순실현가치는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매출원가는 총제품원가에서 기말제품재고원가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에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공정의 완성도 40%)이었고 당기완성품은 3,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1,500단위(공정의 완성도 50%)이었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직접재료 표준원가>

	표준수량	kg당 표준가격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직접재료 A	2.0kg	₩10	₩20
직접재료 B	1.2	20	24

<직접재료 구입 및 투입>

	구입량	투입량	kg당 구입가격
직접재료 A	10,000kg	9,000kg	₩12
직접재료 B	5,000	3,000	18

① ₩10,000 유리

② ₩10,000 불리

③ ₩14,000 유리

④ ₩14,000 불리

⑤ ₩24,000 불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에 수행한 작업만을 기준으로 재료별 표준허용수량을 구한 뒤, 실제투입량과의 차이에 표준가격을 곱하여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를 계산한다.

조건 정리

당기 착수량은 3,500단위 + 1,500단위 - 1,000단위 = 4,000단위이다.
직접재료 A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전기에 이미 투입되었고, 당기 착수량 4,000단위에 대해서만 당기 표준허용수량을 계산한다.
직접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 투입된다. 완성도 40%인 기초재공품 1,000단위는 당기에 B가 투입되고, 당기 착수·완성품 2,500단위에도 B가 투입된다. 완성도 50%인 기말재공품에는 아직 B가 투입되지 않는다.
실제투입량은 A 9,000*kg*, B 3,000*kg*이며, 구입량과 실제구입가격은 능률차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 (실제투입량-표준허용수량)× 표준가격이다.
계산값이 양수이면 불리, 음수이면 유리이다. 재료별 투입시점이 다르므로 A와 B의 표준허용수량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A의 표준허용수량은 $4,000 \times 2.0 = 8,000kg$이다. 따라서 A의 능률차이는 $(9,000 - 8,000) \times 10 = 10,000$원 불리이다.
2. B가 당기에 투입되는 완성품 수량은 기초재공품 1,000단위와 당기 착수·완성품 $3,500 - 1,000 = 2,500$단위를 합한 3,500단위이다. 따라서 B의 표준허용수량은 $3,500 \times 1.2 = 4,200kg$이다.
3. B의 능률차이는 $(3,000 - 4,200) \times 20 = -24,000$원이므로 24,000원 유리이다.
4. 두 재료를 합하면 10,000원 불리와 24,000원 유리가 상계되어 14,000원 유리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원 유리는 총능률차이가 아니다. A에서 발생한 차이는 10,000원 불리이고, B까지 합친 올바른 총액은 14,000원 유리이다.
② X — 10,000원 불리는 A의 능률차이만 계산한 값이다. B의 24,000원 유리를 함께 반영하면 14,000원 유리가 된다.
③ O — A의 10,000원 불리와 B의 24,000원 유리를 상계하면 14,000원 유리이므로 옳다.
④ X — 차이의 절대액 14,000원은 맞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표준허용수량보다 실제투입량이 순액 기준으로 적어 올바르게는 14,000원 유리이다.
⑤ X — 24,000원은 B의 능률차이 절대액일 뿐이고 그 방향도 불리가 아니라 유리이다. A까지 합친 올바른 총액은 14,000원 유리이다.

오답 포인트

A와 B의 투입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A는 기초재공품에 이미 투입되었지만, B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말 완성도가 40%이므로 당기에 60% 지점을 통과하면서 투입된다. 반대로 완성도 50%인 기말재공품에는 B가 아직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능률차이에는 구입량이 아니라 실제투입량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입선출법 재료 능률차이는 재료별 투입시점을 먼저 표시하고, 당기에 그 투입시점을 통과한 수량만 구한 다음 표준수량을 적용한다. 이후 실제투입량과 비교하여 재료별 유리·불리를 구하고 마지막에 순액으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당기 작업만 계산하며, 재료는 투입시점을 당기에 통과한 단위만 표준허용수량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S1	S2
S1	40%	30%	-	30%
S2	40%	40%	20%	-

① ₩50,000

② ₩100,000

③ ₩220,000

④ ₩250,000

⑤ ₩27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상호배분법에서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까지 반영한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뒤,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원가를 제외하여 배분 전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상호배분 후 S1 총원가를 x, S2 총원가를 y라고 한다.
S1은 총원가의 40%를 P1, 30%를 P2, 30%를 S2에 배분한다.
S2는 총원가의 40%를 P1, 40%를 P2, 20%를 S1에 배분한다.
P1과 P2가 두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은 각각 140,000원과 13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상호배분 후 S1 총원가가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받기 전 S1 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제조부문별 배분액을 이용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이 성립한다.
$0.4x + 0.4y = 140{,}000$
$0.3x + 0.4y = 130{,}000$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수수까지 포함하므로, 먼저 x와 y를 구한 다음 S1이 S2에서 배분받은 금액 $0.2y$를 차감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두 식을 빼면 $0.1x = 10{,}000$이므로 $x = 100{,}000$이다.
이를 첫째 식에 대입하면 $0.4 \times 100{,}000 + 0.4y = 140{,}000$이므로 $y = 250{,}000$이다.
S2가 S1에 배분한 원가는 $0.2y = 0.2 \times 250{,}000 = 50{,}000$이다.
따라서 배분 전 S1 원가는 $x - 0.2y = 100{,}000 - 50{,}000 = 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배분 전 S1 원가는 50,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 100,000원은 S2에서 배분받은 원가까지 포함한 상호배분 후 S1 총원가이다. 배분 전 S1 원가는 50,000원이다.
③ X — 220,000원은 상호배분 후 S2 총원가 250,000원에서 S1이 S2에 배분한 30,000원을 뺀 배분 전 S2 원가이다. 배분 전 S1 원가는 50,000원이다.
④ X — 250,000원은 상호배분 후 S2 총원가이다. 배분 전 S1 원가는 50,000원이다.
⑤ X — 270,000원은 P1과 P2에 배분된 금액 140,000원과 130,000원의 합계이다. 배분 전 S1 원가는 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100,000원은 상호배분 후 총원가와 배분 전 원가를 혼동한 값이다. 상호배분 후 S1 총원가에는 S2에서 받은 50,000원이 포함되므로 이를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③과 ④는 S2의 원가이고, ⑤는 두 제조부문에 배분된 총액이므로 구하는 대상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조부문에 실제 배분된 금액으로 보조부문별 상호배분 후 총원가를 먼저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이후 문제에서 배분 전 원가를 묻는다면 다른 보조부문에서 받은 배분액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분 후 총원가 = 배분 전 원가 + 다른 보조부문에서 받은 원가이다. 따라서 배분 전 원가는 상호배분 후 총원가에서 받은 원가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x1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주요 고객 A가 12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판매관리비는?

◯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500,000(급여 ₩300,000, 기타 ₩200,000)

◯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60%	40%	100%
기타	70%	30%	100%

◯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8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30명

① ₩6,000

② ₩8,000

③ ₩14,000

④ ₩48,000

⑤ ₩54,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원 원가를 활동별로 배분한 뒤 활동별 원가동인율을 구하여 특정 고객에게 판매관리비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계산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간 판매관리비는 급여 300,000원과 기타 200,000원이다.
고객주문처리에는 급여의 60%와 기타의 70%가 배분되고, 연간 주문횟수는 80회이다.
고객관계관리에는 급여의 40%와 기타의 30%가 배분되고, 고객 수는 30명이다.
고객 A의 주문횟수는 12회이며, 고객관계관리 원가는 고객 1명분을 배부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활동별 원가=Σ(자원 원가×활동별 배분비율)
활동별 원가동인율=활동별 원가연간 활동량
고객별 배부액=Σ(활동별 원가동인율×해당 고객의 활동량)
급여와 기타가 각 활동에 서로 다른 비율로 배분되므로 먼저 활동별 원가를 각각 집계한 후, 각 활동의 원가동인으로 나누어야 한다.

계산 과정

1. 고객주문처리 원가는 300,000 × 60% + 200,000 × 70% = 320,000원이다.
2. 주문 1회당 원가동인율은 320,000 ÷ 80 = 4,000원이므로 고객 A의 고객주문처리 배부액은 4,000 × 12 = 48,000원이다.
3. 고객관계관리 원가는 300,000 × 40% + 200,000 × 30% = 180,000원이다.
4. 고객 1명당 원가동인율은 180,000 ÷ 30 = 6,000원이므로 고객 A의 고객관계관리 배부액은 6,000원이다.
5. 고객 A에게 배부할 판매관리비는 48,000 + 6,000 = 5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6,000원은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고객 1명분만 계산한 금액이다. 고객주문처리 배부액 48,000원을 더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4,000원이다.
② X — 8,000원은 두 활동의 원가동인율과 고객 A의 활동량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고객주문처리 48,000원과 고객관계관리 6,000원을 합산한 5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4,000원은 주문 12회에 주문 1회당 원가동인율 4,000원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객 A의 전체 배부액은 54,000원이다.
④ X — 48,000원은 고객주문처리 활동만 배부한 금액이다.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고객 1명분 6,000원도 더해야 하므로 5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고객주문처리 배부액 48,000원과 고객관계관리 배부액 6,000원의 합계가 5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주문횟수 기준의 고객주문처리 원가만 계산하고 고객 수 기준의 고객관계관리 원가를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다. 반대로 ①은 고객관계관리 원가만 계산한 값이다. 활동마다 원가동인이 다르므로 각 활동의 배부액을 별도로 계산한 뒤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원별 원가를 활동별 배분비율로 배분하고, 활동별 원가를 해당 원가동인의 총활동량으로 나누며, 마지막으로 특정 원가대상의 실제 활동량을 곱해 활동별 배부액을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자원 원가 → 활동 원가 → 원가동인율 → 원가대상별 배부액의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두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A공정 완성품(양품)은 바로 판매할 수 없고, B공정에서 추가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후에 단위당 ₩100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 A공정에서는 투입량의 10%가 A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지만, B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공손은 정상공손이고 정상공손원가는 양품에 배분하며, 공손품은 처분가치도 폐기비용도 없다. B공정 완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A공정	B공정
최대생산능력	7,000단위	9,000단위
총 고정원가	₩188,000	₩160,000
단위당 변동원가	₩12	₩20

① 5,220단위

② 5,400단위

③ 5,800단위

④ 6,000단위

⑤ 6,120단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상공손을 양품이 부담할 때 A공정의 투입량 기준 변동원가를 완제품 1단위 기준으로 환산한 뒤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 완제품 1단위당 100원
총고정원가: 188,000원 + 160,000원 = 348,000원
A공정 변동원가: 투입량 1단위당 12원
B공정 변동원가: 완제품 1단위당 20원
A공정 수율: $1 - 0.10 = 0.90$
주의할 조건: A공정 투입량의 10%가 정상공손이므로 완제품 q단위를 만들려면 A공정에 $q/0.9$단위를 투입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 판매량=총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완제품 1단위당 변동원가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 영업이익이 0이 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완제품 1단위에 필요한 A공정 투입량은 1/0.9단위이다.
2. 완제품 1단위당 A공정 변동원가는 $12/0.9 = 40/3$, 총변동원가는 $40/3 + 20 = 100/3$이다.
3. 완제품 1단위당 공헌이익은 $100 - 100/3 = 200/3$이다.
4.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q = \frac{348{,}000}{200/3} = 5{,}220$
5. 이때 A공정 투입량은 $5{,}220/0.9 = 5{,}800$단위로 최대생산능력 7,000단위 이내이고, B공정 생산량 5,220단위도 최대생산능력 9,000단위 이내이므로 생산능력 제약에 걸리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5,220단위이므로 옳다.
② X — 5,400단위를 판매하면 총공헌이익이 360,0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12,000원 많아 이미 이익이 발생한다. 5,400단위가 아니라 5,220단위가 손익분기점이다.
③ X — 5,800단위는 손익분기점에서 필요한 A공정 투입량 $5{,}220/0.9$이지 B공정 완제품 판매량이 아니다. 완제품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220단위이다.
④ X — 6,000단위를 판매하면 총공헌이익이 400,000원으로 영업이익이 52,000원 발생한다. 6,000단위가 아니라 5,220단위가 손익분기점이다.
⑤ X — 6,120단위를 판매하면 총공헌이익이 408,000원으로 영업이익이 60,000원 발생한다. 6,120단위가 아니라 5,220단위가 손익분기점이다.

오답 포인트

정상공손률 10%를 완제품 수량에서 단순히 차감하거나, ③의 5,800단위를 완제품 판매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손은 A공정 투입량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완제품 수량을 수율 0.9로 나누어 A공정 투입량과 변동원가를 환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손이 있는 다공정 손익분기점 문제에서는 먼저 최종 양품 1단위에 필요한 앞 공정 투입량을 수율로 환산하고, 공정별 변동원가를 최종 양품 1단위 기준으로 합산한 다음 단위당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생산량이 각 공정의 최대생산능력 이내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상공손이 있으면 앞 공정 원가는 수율로 나누어 양품 원가에 배분한다: 양품 1단위당 앞 공정 변동원가 = 투입 1단위당 변동원가 ÷ 수율.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생산량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50
총 고정판매관리비	324,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5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① 4,160단위

② 4,460단위

③ 4,600단위

④ 4,640단위

⑤ 4,680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의 변동제조원가로 보고,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기준에 따라 단위당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 단위당 500원
직접재료원가: 단위당 100원
변동판매관리비: 단위당 50원
직접노무원가 총액: 150원 × 5,000단위 = 75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액: 50원 × 5,000단위 = 250,00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원
고정판매관리비: 324,000원
주의할 조건: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손익분기점 계산의 기간원가 총액에 포함하고, 판매량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판매관리비는 단위당 공헌이익 계산에서 차감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다.
500-100-50=350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손익분기점 판매량=기간원가 총액단위당 공헌이익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보므로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간원가 총액에 더한다.

계산 과정

1. 직접노무원가 총액은 150원 × 5,000단위 = 750,000원이다.
2.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액은 50원 × 5,000단위 = 250,000원이다.
3. 기간원가 총액은 300,000원 + 324,000원 + 750,000원 + 250,000원 = 1,624,000원이다.
4.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원 - 100원 - 50원 = 350원이다.
5.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1,624,000350=4,640단위

선지 판단

① X — 4,160단위에서는 공헌이익 총액이 1,456,000원으로 기간원가 1,624,000원보다 168,000원 부족하다. 또한 4,160단위는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까지 단위당 변동원가로 차감하는 변동원가계산식으로 얻는 값이다. 올바른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640단위이다.
② X — 4,460단위의 공헌이익 총액은 1,561,000원이므로 63,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올바른 값은 4,640단위이다.
③ X — 4,600단위의 공헌이익 총액은 1,610,000원이므로 14,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올바른 값은 4,640단위이다.
④ O — 4,640단위의 공헌이익 총액은 1,624,000원으로 기간원가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여 영업이익이 0원이 된다.
⑤ X — 4,680단위의 공헌이익 총액은 1,638,000원으로 기간원가 총액보다 14,000원 많아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아니며, 올바른 값은 4,64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4,160단위는 초변동원가계산을 일반 변동원가계산과 혼동할 때 나오는 값이다.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단위당 변동원가에서 빼는 대신 생산량 5,000단위를 곱한 총액을 기간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변동판매관리비 50원은 판매량에 따라 변하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먼저 직접재료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고, 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고정판매관리비를 기간원가 총액으로 합산한 뒤 두 금액을 나누어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해당 판매량의 공헌이익 총액과 기간원가 총액이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본다.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당기비용이며, 변동판매관리비는 단위당 공헌이익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220이며, 총 고정원가는 ₩1,080,000이다. 당기 예상 매출액은 ₩1,000,000부터 ₩3,000,000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3,000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a)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b)의 합(a+b)은?

① 40%

② 50%

③ 60%

④ 70%

⑤ 8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판매량 조건을 매출액 조건으로 바꾸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 뒤 균등분포의 구간 길이 비율로 두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단위당 판매가격 400원, 단위당 변동원가 220원, 총고정원가 1,080,000원, 예상 매출액 1,000,000원~3,000,000원
구해야 할 값: 3,000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 a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b의 합
주의할 조건: 매출액이 균등분포이므로 확률은 해당 매출액 구간의 길이를 전체 구간 길이로 나누어 구한다.

사용할 공식

공헌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공헌이익률=(400-220)/(400)=0.45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총고정원가공헌이익률
구간 $[L, U]$에서 균등분포하는 매출액 S에 대하여 구간 확률은 해당 구간 길이를 전체 길이 $U - L$로 나눈 값이다. 매출액의 모든 값이 같은 밀도를 가지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3,000단위 판매 시 매출액은 $3{,}000 \times 400 = 1{,}200{,}000$원이다. 따라서
$a = P(S \le 1{,}200{,}000) = \frac{1{,}200{,}000 - 1{,}000{,}000}{3{,}000{,}000 - 1{,}000{,}000} = 0.10$
2.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80,0000.45=2,400,000원
이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출액이 2,400,0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b = P(S \ge 2{,}400{,}000) = \frac{3{,}000{,}000 - 2{,}400{,}000}{3{,}000{,}000 - 1{,}000{,}000} = 0.30$
3. 따라서 $a + b = 0.10 + 0.30 = 0.40 = 40\%$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a + b = 40\%$이므로 옳다.
② X — 50%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a = 10\%$, $b = 30\%$이므로 합은 40%이다.
③ X — 60%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전체 매출액 구간 2,000,000원 중 각 조건의 구간 길이를 사용하여 합을 40%로 계산한다.
④ X — 70%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무손실 확률을 손익분기점 이하가 아니라 2,400,000원 이상인 구간으로 계산하여 합을 40%로 구한다.
⑤ X — 80%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a와 b를 각각 10%와 30%로 계산하므로 합은 40%이다.

오답 포인트

3,000단위를 매출액 1,200,000원으로 바꾸지 않거나, 무손실 조건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로 잡으면 확률 구간이 뒤바뀐다. 또한 확률의 분모는 매출액 범위의 전체 길이인 2,000,0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량 조건은 먼저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무손실 조건은 공헌이익률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해 경계를 정한다. 그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매출액 구간 길이를 전체 균등분포 구간 길이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균등분포 확률은 구간 길이의 비율이며, 무손실 경계 매출액은 총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10,000이고,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70,000이 발생한다. 공정을 조사하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19,000이고 공정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21,000이다. 공정 전문가 L씨에게 상담을 받으면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L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① ₩2,000

② ₩3,000

③ ₩7,000

④ ₩8,000

⑤ ₩9,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정상 확률과 교정비용을 기대비용에서 역산한 뒤,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과 현재의 최소 기대비용 차이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비정상 확률을 p, 비정상일 때의 교정비용을 C라 한다.
조사비용: ₩10,000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을 때의 손실: ₩70,000
조사할 때의 기대비용: ₩19,000
조사하지 않을 때의 기대비용: ₩21,000
현재는 기대비용이 더 작은 조사안을 선택하므로 최소 기대비용은 ₩19,000이다.

사용할 공식

조사하지 않을 때의 기대비용은 $70{,}000p$이다.
조사할 때의 기대비용은 $10{,}000 + pC$이다.
비용 문제에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다.
EVPI=현재의 최소 기대비용-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
완전정보는 공정 상태를 미리 알려 주므로 각 상태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조사하지 않을 때의 기대비용으로 비정상 확률을 구한다.
$70{,}000p = 21{,}000 \quad \Rightarrow \quad p = 0.3$
따라서 정상 확률은 0.7이다.

2. 조사할 때의 기대비용으로 교정비용을 구한다.
$10{,}000 + 0.3C = 19{,}000 \quad \Rightarrow \quad C = 30{,}000$

3. 완전정보가 있을 때 상태별 최적 행동을 정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조사하지 않아 비용이 0이다. 비정상 상태에서는 조사 후 교정하는 비용 ₩40,000이 조사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 ₩70,000보다 작다.

4.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을 구한다.
$0.7 \times 0 + 0.3 \times (10{,}000 + 30{,}000) = 12{,}000$

5.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를 구한다.
$\text{EVPI} = 19{,}000 - 12{,}000 = 7{,}000$
따라서 완전정보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7,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00은 조사하지 않을 때와 조사할 때의 기대비용 차이인 ₩21,000-₩19,000일 뿐,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비용 절감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2,000은 ₩7,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기대비용은 ₩12,000이므로 현재 최소 기대비용 ₩19,000과의 차이는 ₩3,000이 아니라 ₩7,000이다. 틀린 금액 ₩3,000은 ₩7,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현재 최소 기대비용 ₩19,000에서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최소 기대비용 ₩12,000을 차감하면 ₩7,000이다.
④ X — 완전정보로 줄일 수 있는 기대비용은 ₩8,000이 아니라 ₩7,000이다. 틀린 금액 ₩8,000은 ₩7,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9,000은 비정상 확률을 반영한 기대교정비용 $0.3 \times 30{,}000$이다. 이는 완전정보가치가 아니므로 틀린 금액 ₩9,000은 ₩7,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2,000은 현재 두 대안의 기대비용 차이일 뿐이다. 완전정보가치는 현재 선택안의 비용과 완전정보 아래에서 상태별 최적 행동을 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완전정보가 공정 상태를 알려 주더라도 비정상 상태에서 선택하는 조사·교정 행동의 비용 ₩40,000은 남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형 완전정보 문제는 먼저 현재 대안 중 최소 기대비용을 정하고, 다음으로 완전정보 아래에서 각 상태별 최소비용을 선택하여 기대비용을 구한 뒤,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비용 문제의 EVPI는 '현재 최소 기대비용 - 완전정보 아래 최소 기대비용'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A	B	합계
S1	-	200kW	500kW	300kW	1,000kW
S2	300시간	-	450시간	250시간	1,000시간

① ₩4,000

② ₩11,200

③ ₩12,800

④ ₩13,600

⑤ ₩14,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을 외부조달로 대체할 때 회피되는 변동원가와 새로 발생하는 외부구입비의 차이로 이익 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S1 폐지로 S2가 S1에 제공하던 용역도 없어지므로, S2의 전력 수요와 변동원가가 함께 감소한다.

조건 정리

S1의 전체 전력 공급량: 1,000*kW*
S1의 변동원가: 100원/*kW*
S2의 전체 용역량: 1,000시간, 이 중 S1 제공분: 300시간
S2의 변동원가: 80원/시간
외부 전력 구입가격: 120원/*kW*
주의할 조건: S1 폐지 후 S2의 용역량은 700시간으로 줄어들며, S2가 쓰는 전력도 용역량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익 증가액=회피되는 변동원가-외부 전력 구입비
S1을 폐지하면 S1의 변동원가와 S2의 감소한 용역에 관한 변동원가를 피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부문에 필요한 전력은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S1이 폐지되면 S2가 S1에 제공하던 300시간이 사라지므로 S2의 남은 용역량은 $1{,}000 - 300 = 700$ 시간이다.
2. S2의 전력 사용량은 $200kW \times 700/1{,}000 = 140kW$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구입할 전력은 S2의 $140kW$, A의 $500kW$, B의 $300kW$를 합한 $940kW$이다.
3. 회피되는 S1 변동원가는 $1{,}000kW \times 100$원$/kW$=100,000원이다.
4. 회피되는 S2 변동원가는 300시간×80원/시간=24,000원이다.
5. 외부 전력 구입비는 $940kW \times 120$원$/kW$=112,800원이다.
6. 이익 증가액은 100,000원+24,000원-112,800원=11,2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000은 외부 구입량을 기존 S1의 전체 공급량인 $1{,}000kW$로 그대로 잡을 때 나오는 값이다. S2의 전력 수요 감소를 반영한 외부 구입량은 $940kW$이므로, '₩4,000'은 '₩11,2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회피되는 변동원가 124,000원에서 외부 전력 구입비 112,800원을 차감하면 이익은 ₩11,200 증가한다.
③ X — ₩12,800은 S2의 회피가능 변동원가 24,000원을 누락하면 생기는 12,800원의 이익 감소를 증가로 뒤집어 본 값이다. '₩12,800 증가'는 '₩11,20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④ X — 회피원가와 외부 구입비의 차이는 ₩13,600이 아니라 ₩11,200이다. '₩13,600'은 '₩11,2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회피원가와 외부 구입비의 차이는 ₩14,400이 아니라 ₩11,200이다. '₩14,400'은 '₩11,2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S1의 기존 공급량 $1{,}000kW$를 그대로 외부구입량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S1이 폐지되면 S2가 S1에 제공하던 300시간의 용역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S2가 소비하던 전력도 $200kW$에서 $140kW$로 감소한다. 또한 S2의 감소한 300시간에 관한 변동원가 24,000원도 회피원가에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부문 폐지 문제에서는 먼저 상호 제공 용역의 소멸이 다른 보조부문의 활동량과 투입량을 얼마나 줄이는지 다시 계산한다. 그다음 폐지로 회피되는 모든 변동원가에서 남은 수요의 외부구입비를 차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조부문 폐지의 증분이익은 '회피가능원가-대체구입비'이며, 상호 용역의 연쇄 감소까지 반영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A, B, C 세 가지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은 1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최대 달성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생산·판매 계획을 수립한 직후에 그 동안 거래가 전혀 없던 (주)한국으로부터 제품 A를 단위당 ₩360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400	₩500	₩700
단위당 변동원가	₩160	₩200	₩380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품별 정규 시장수요	3,000단위	1,000단위	500단위

① ₩50,000

② ₩42,000

③ ₩38,000

④ ₩25,000

⑤ ₩2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인 특수기계 시간이 이미 모두 사용되는 상황에서 특별주문의 증분공헌이익과 정규 판매를 포기하여 생기는 기회원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은 A 240원, B 300원, C 320원이다. 특수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은 A 120원, B 100원, C 80원이므로 정규 생산 우선순위는 A → B → C이다. 최대 10,000시간 중 A 3,000단위에 6,000시간, B 1,000단위에 3,000시간을 사용하고, 남은 1,000시간으로 C 250단위를 생산한다. 특별주문 A 800단위에는 1,600시간이 필요하며, 특별주문은 정규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이익 증가액 = 특별주문의 증분공헌이익 - 제약자원 사용에 따른 기회원가이다.
생산능력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특별주문을 위해 포기하는 정규 제품의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차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특별주문 A의 단위당 증분공헌이익은 360원 - 160원 = 200원이고, 총 증분공헌이익은 200원 × 800단위 = 160,000원이다.
2. 필요한 1,600시간은 시간당 공헌이익이 가장 낮은 정규 제품부터 줄여 확보한다. 먼저 C 250단위를 포기하면 1,000시간을 확보하고 공헌이익 320원 × 250단위 = 80,000원을 잃는다.
3. 나머지 600시간은 B 200단위를 포기하여 확보하고 공헌이익 300원 × 200단위 = 60,000원을 잃는다.
4. 기회원가는 80,000원 + 60,000원 = 140,000원이다. 따라서 이익 증가액은 160,000원 - 140,000원 = 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0,000원은 특별주문의 총 증분공헌이익 160,000원에서 실제 기회원가 140,000원을 차감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이익 증가액은 20,000원이다.
② X — 42,000원은 C 250단위와 B 200단위를 포기하여 발생하는 기회원가 140,000원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이익 증가액은 20,000원이다.
③ X — 38,000원은 특별주문에 필요한 1,6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잃는 공헌이익을 정확히 차감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이익 증가액은 20,000원이다.
④ X — 25,000원은 특별주문의 증분공헌이익 160,000원과 기회원가 140,000원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른 이익 증가액은 20,000원이다.
⑤ O — 특별주문의 증분공헌이익 160,000원에서 정규 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 140,000원을 차감하면 이익이 20,000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특별주문 단가 360원과 변동원가 160원의 차이만 계산하면 160,000원이 나오지만, 특수기계가 이미 최대 10,000시간 가동 중이므로 이것이 최종 이익 증가액은 아니다. 또한 기회원가는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1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C, B의 순서로 생산을 줄여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이 있는 특별주문 문제는 먼저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정규 생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별주문에 필요한 제약자원 때문에 포기하는 정규 공헌이익을 구한 뒤 특별주문의 증분공헌이익에서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유휴능력이 없으면 특별주문 이익은 증분공헌이익에서 포기한 정규 공헌이익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제품 생산량이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840단위이고, 두 번째 구간(1,001 ~ 2,5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2,400단위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원가(a)와 달성가능한 최대이익(b)은? (단,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만 고려할 것)

① (a): ₩78,000, / (b): ₩5,000

② (a): ₩78,000, / (b): ₩8,000

③ (a): ₩82,000, / (b): ₩5,000

④ (a): ₩82,000, / (b): ₩8,000

⑤ (a): ₩92,000, / (b): ₩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 판매량으로 각 구간의 고정원가를 역산하고, 두 구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은 단위당 ₩200, 변동원가는 단위당 ₩15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50이다. 첫 번째 구간은 1~1,0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은 840단위이다. 두 번째 구간은 1,001~2,5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은 2,40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은 두 구간의 고정원가 증가액 a와 두 구간 전체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이익 b이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0이므로 고정원가=손익분기점 판매량×단위당 공헌이익이다. 각 구간의 이익은 판매량×단위당 공헌이익-해당 구간 고정원가로 계산한다. 판매량이 늘수록 이익이 단위당 공헌이익만큼 증가하므로 각 구간의 최대 생산량에서 그 구간의 최대이익이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 − 150 = 50이므로 ₩50이다.
2. 첫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는 840 × 50 = 42,000이므로 ₩42,000이다.
3. 두 번째 구간의 고정원가는 2,400 × 50 = 120,000이므로 ₩120,000이다. 따라서 증가 고정원가 *a*는 ₩120,000-₩42,000=₩78,000이다.
4. 첫 번째 구간의 최대이익은 1,000단위 생산·판매 시 1,000 × 50 − 42,000 = 8,000이므로 ₩8,000이다.
5. 두 번째 구간의 최대이익은 2,500단위 생산·판매 시 2,500 × 50 − 120,000 = 5,000이므로 ₩5,000이다.

두 구간을 비교하면 달성 가능한 최대이익 *b*는 ₩8,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a*의 ₩78,000은 맞지만, '*b*: ₩5,000'이 틀렸다. ₩5,000은 두 번째 구간에서의 최대이익일 뿐이며, 두 구간 전체의 최대이익은 첫 번째 구간에서 달성하는 ₩8,000이다. 올바르게는 '*a*: ₩78,000, *b*: ₩8,000'이다.

② O. 고정원가 증가액은 ₩78,000이고, 첫 번째 구간의 최대이익 ₩8,000이 두 번째 구간의 최대이익 ₩5,000보다 크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③ X. '*a*: ₩82,000'과 '*b*: ₩5,000'이 모두 틀렸다. 두 구간의 고정원가 차이는 ₩78,000이고, 전체 최대이익은 ₩8,000이다. 올바르게는 '*a*: ₩78,000, *b*: ₩8,000'이다.

④ X. *b*의 ₩8,000은 맞지만, '*a*: ₩82,000'이 틀렸다. 고정원가는 각각 ₩42,000과 ₩120,000이므로 증가액은 ₩78,000이다. 올바르게는 '*a*: ₩78,000, *b*: ₩8,000'이다.

⑤ X. '*a*: ₩92,000'과 '*b*: ₩5,000'이 모두 틀렸다. 증가 고정원가는 ₩78,000이고, 두 구간을 통틀어 달성 가능한 최대이익은 ₩8,000이다. 올바르게는 '*a*: ₩78,000, *b*: ₩8,000'이다.

오답 포인트

두 번째 구간의 상한인 2,500단위에서 계산한 ₩5,000을 곧바로 전체 최대이익으로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고정원가가 계단형으로 증가하므로 생산량이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이익이 불연속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각 구간의 최대이익을 따로 구한 뒤 ₩8,000과 ₩5,000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단형 고정원가 문제에서는 먼저 공헌이익으로 각 구간의 고정원가를 역산한다. 그다음 각 구간 상한에서의 이익을 각각 계산하여 가장 큰 값을 전체 달성 가능 최대이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단형 고정원가에서는 '구간별 고정원가 역산 → 구간별 상한이익 계산 → 상한이익끼리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인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외부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B사업부에 내부대체할 수도 있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4,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외부시장에 단위당 ₩1,000에 3,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업부는 B사업부로부터 1,6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만, 내부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A사업부의 변동원가가 단위당 ₩50 감소한다. A사업부가 1,6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① ₩600

② ₩650

③ ₩700

④ ₩750

⑤ ₩8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휴생산능력으로 충당하는 수량과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하는 수량을 구분하여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대생산능력은 4,000단위이고 예상 외부판매량은 3,00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000단위이다. 내부대체 요구량 1,600단위 중 나머지 600단위는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생산할 수 있다. 내부대체분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원에서 50원 감소한 550원이다.

사용할 공식

$P_{min} = VC_T + OC_T$

여기서 P_{min}은 단위당 최소대체가격, VC_T는 단위당 내부대체 변동원가, OC_T는 단위당 평균 기회비용이다. 단위당 평균 기회비용은 외부판매를 포기하여 잃는 공헌이익 총액을 전체 내부대체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600단위에서만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휴생산능력: 4,000단위 - 3,000단위 = 1,000단위
2. 외부판매 포기수량: 1,600단위 - 1,000단위 = 600단위
3. 외부판매 단위당 공헌이익: 1,000원 - 600원 = 400원
4. 포기하는 공헌이익 총액: 600단위 × 400원 = 240,000원
5. 단위당 평균 기회비용: 240,000원 ÷ 1,600단위 = 150원
6. 단위당 최소대체가격: 550원 + 150원 = 700원

선지 판단

① X — 600원은 계산 결과 700원보다 낮다. 550원에 더할 단위당 평균 기회비용을 50원으로 본 금액이지만, 올바른 평균 기회비용은 150원이므로 600원은 7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650원은 550원에 평균 기회비용을 100원만 더한 금액이다. 포기하는 공헌이익 240,000원을 전체 대체수량 1,600단위로 나누면 150원이므로 650원은 7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내부대체 변동원가 550원과 단위당 평균 기회비용 150원을 합한 700원이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이다.
④ X — 750원은 평균 기회비용을 200원으로 과대계상한 금액이다. 올바른 평균 기회비용은 150원이므로 750원은 7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800원은 평균 기회비용을 250원으로 과대계상한 금액이다. 올바른 평균 기회비용은 150원이므로 800원은 7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내부대체분의 변동원가가 50원 감소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출발금액을 600원으로 잘못 잡게 된다. 또한 기회비용 400원은 외부판매를 포기하는 600단위에만 발생하므로, 이를 1,600단위 전부에 더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휴생산능력을 구하고, 대체요구량 중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외부판매를 포기하게 되는 수량만 찾는다. 그 수량의 포기 공헌이익을 전체 대체수량에 배분한 뒤 내부대체분의 변동원가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대체가격은 추가 변동원가와 기회비용의 합이며, 기회비용은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에서만 발생한다.

NoteBase